

K-뷰티, 인도·튀르키예·멕시코·태국을 노려라

무협, 'K-뷰티 신규 유망시장' 보고서
대중국 수출부진, 시장 다변화로 극복

중국 시장의 부진을 딛고 미국·일본·베트남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K-뷰티 수출의 미래 시장은 인도·튀르키예·멕시코·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K-뷰티 수출 현황 및 신규 유망시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중국 중심의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일본·베트남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장품 수출은 2022년 대중국 수출 부진 영향으로 역성장했으나, 2023년에는 미국 등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가분이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감소분을 압도하며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 수출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3월까지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1.3% 성장했다.

보고서는 화장품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 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며, >화장품에 대한 수입 수요 >한국에 대한 관심도 >시장 잠재력을 고려해 화장품 수출 유망시장 4개국(인도·튀르키예·멕시코·태국)을 선정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팬데믹 동안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뷰티·패션·한식 등 관련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7위의 화장품 소매시장을 보유한 인도는 팬데믹 이후 K-콘텐츠가 주류 문화로 부상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화장품 수입 규모 순위에서 한국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7위였던 것이 2021년부터는 벨기에, 미국, 프랑스를 제치고 3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보고서는 인도 화장품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비건 등 기초화장품 중심의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초화장품 종류와 사용순서를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사용법 상세 설명이 필요하며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커머스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에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내다봤다.

튀르키예에서는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및 좋은 성분을 추구하는 클린 뷰티(Clean Beauty) 트렌드가 K-뷰티와 부합해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보고서는 튀르키예 시장 공략을 위해서 할랄·비건 제품 확대와 함께 합리적 가격 설정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2019년 한국산은 튀르키예 수입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8위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점유율이 10.3%까지 뛰어오르면서 3위로 부상했다.

2800만 명의 한류 동호회 회원수를 보유한 멕시코도 주목되는 국가다. 멕시코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13억 달러에 달하고 수입시장도 최근 3년간 연평균 23% 성장했다. 다만, 멕시코 기초·색조 화장품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약 3%로 저조한 만큼 향후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의 진출 여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한류 동호회 회원 수 3위인 태국에서는 피부미백과 자연스러운 화장법을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으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한국 화장품이 입점해 있으며, 마스크팩·토너 등 한국 제품이 현지 온라인 판매 순위 10위권에 진입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태국 수입화장품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은 일본 제품을 제치고 프랑스에 이어 2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

김영채 기자

원화, OECD 5번째 저평가... 달러당 1200원선 적정

원화의 실질 가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2월 말 기준 96.7(2020년=100)을 기록했다.

BIS 통계에 포함된 OECD 가입 37개국 중에서는 한국이 일본(70.3), 튀르키예(90.2), 노르웨이(95.3), 이스라엘(95.6) 등에 이어 5번째로 수치가 낮았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일본과 튀르키예, 중국(93.4)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원화가 장기 평균 대비 약 6~7% 정도 저평가돼 있다"며 "환율이 1200원대 후반이면 실질실효환율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채 기자



수출 애로? 수주 고민?

해외마케팅

금융/보증

해외인증

물류/통관

한번에 해결하세요!

기업의 수출/수주 관련 애로사항,
여러곳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이제는 한 곳에서 속시원히 해소하세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02-6000-5778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4층

🌐 www.export119.go.kr

K-조선의 위업... LNG 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이 30년 만에 500호를 달성했다. 4월 18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LNG 운반선 '오리온 스피릿(Orion Spirit)'호 명명식이 진행됐다. 오리온 스피릿은 지난 1994년 한국이 처음으로 LNG 운반선을 건조한 이래 국내 조선소가 500번째로 수출하는 선박으로 미국 JP모건에 인도된다.

LNG운반선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적당 3000억 원이 넘는 고부가선박이다.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LNG운반선 총 680척 가운데 4분의 3이 한국에서 건조됐다. 앞으로 국내에서 건조될 선박도 256척에 달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명명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표

한다"며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중국(126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지난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29척을 모두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영채 기자



4월 18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오리온 스피릿호 명명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대미 수출 다시 늘어나지만... 미국 제재 위험 커져

한국, 지난해 미국 10대 적자국 중 8위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직접투자(FDI) 등에 힘입어 대미국 수출이 당분간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중장기(2~10년)적 관점에서 보면 무역 제재 등 여러 위험 요소도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대미국 수출 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결국 대미국 수출액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앞질렀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올들어 4월 10일까지 대미 수출은 344억8800만 달러, 대중 수출은 340억9400만 달러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했다.

대미국 수출 호조는 미국의 탄탄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에 한국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로 평가됐다.

하지만 대규모 대미국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제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 중 8위(514억 달러 적자)를 차지했다.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연합뉴스에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셰이프가드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재집권을 가정한 질문에는 "무역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운동 때 말하는 정책과 집권 후 정책은 다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통상압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국내 물가 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남 과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돼 이들 분야에서 국내 투자 둔화나 인재 유출 위험도 있다"며 "인재 유출 유인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미국의 활발한 소비·투자가 우리나라의 직접수출뿐 아니라 중국·아세안을 통한 간접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 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FDI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의 산업 구조 특성상 수입 중간재보다는 자국 산업의 투입 비중이 큰 데다, 생산비용 수준도 높아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동반 진출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2020년 이후 대미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으로 ▷미국 내수(소비·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간재 비중·다양성 확대 ▷소비재 비중 장기 30% 유지 등을 꼽았다.

김보근 기자

지난해 수출대금 달러 결제 비중 줄고 원·유로 늘어

지난해 수출과 수입 결제 대금 가운데 달러화 비중이 줄어든 대신 유로화와 원화는 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결제 대금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 83.1% ▷유로화 6.8% ▷원화 2.8% ▷엔화 2.3% ▷위안화 1.7%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달러가 2.0%p 줄었다. 달러 결제율이 높은 반도체(달러 결제율 98.3%), 석유제품(98.9%), 화공품(87.7%)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9.7%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화는 1년 새 0.5%p 늘어 6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승용차,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원화결제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수출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늘어나면 환전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줄고 환율 변동성에 따

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유로화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결제 비중도 1.0%p 늘었다. 엔화와 위안화 결제 비중은 전년 대비 포함 수준이었다.

수입 결제 대금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 80.6% ▷원화 6.7% ▷유로화 5.8% ▷엔화 3.8% ▷위안화 2.4% 등이었다.

통상달러를 주고 수입하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14.5% 감소하면서 달러 결제 비중도 전년보다 2.3%p 줄었다. 배럴당 원유 연평균 원유 도입 단가는 2022년 102.8달러에서 지난해 85.7달러로 16.7% 내렸다.

반면, 위안화의 수입 결제 비중(2.4%)은 1년 전보다 0.7%p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원화와 유로화도 각 0.6%p, 1.0%p 늘었다. 위안화 결제 증가는 중국으로부터 이차전지 수입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보근 기자

무보 '수출성장 플래닛' 모집... 보험·보증료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글로벌 우량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의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K-SURE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강소기업이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도약하는 효과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자도입된 수출성장 플래닛 프로그램은 수출규모 ▷100만 달러 이하 ▷3000만 달러 이하 ▷3000만 달러 초과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우대지원이 특징이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 부여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연 30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영채 기자



“이차전지 수출 감소는 국내생산 비중 감소 탓”

무협 “세계시장 점유율은 1위”

2023년 이차전지 수출의 증감 폭이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처음 역성장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K-배터리의 글로벌 사용량은 29.6%로 대폭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국내 생산 비중이 10%를 밑돌면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수출구조 변동은 우리 배터리 기업의 해

외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비중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해외 생산 비중은 9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 후 판매되는 배터리는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출 금액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은 9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K-배터리의 글로벌 사용량은 2022년 대비 29.6%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인 헝가리와 폴란드의 이차전지 수출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1~9월 기준 세계 이차전지 상위 5대 수출국 중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헝가리(66.2%)와 폴란드(65.9%)로, 중국(32.4%)을 크게 웃돌았다.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 총생산의 47.5%, 헝가리는 삼성 SDI 총생산의 77.1%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 거점이다.

보고서는 그 외의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으로 중국과의 경쟁 및 LFP 배터리 선호도 증가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를 꼽았다.

우리나라 배터리 수출에 대한 각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해외 생산 확대(2.44%)’가 수출 변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기업과의 경쟁 및 LFP 배터리 선호도 증가’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76%, 0.75%로 나타나 영향력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 중 미국 금리가 인하될 경우, 주요국의 점진적 경기 개선에 힘입은 전기차·배터리 수요 회복이 예상돼 이차전지 산업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중국산 배터리 견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최근 원료 광물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한상이 왔어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4월 17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24개국 49개 지회 소속 106명의 한상(韓商) 바이어를 초청해 충남도 90여개 중소기업과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월드옥타는 70개국 148개 지회에 7000여 명의 정회원과 2만8000여 명의 차세대 경제인을 회원으로 둔 해외동포 최대 경제단체다. 상담회에는 식품류 가공식품, 뷰티·화장품, 생활용품, 친환경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기업들이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 상승은 기업에 불리하지만, 이차전지 산업은 납품 단가가 원자재 가격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광물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재 구매와 완제품 납품 간 시차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된다.

도원빈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배터리 수출이 감소한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아닌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현상”이라며 “2023년 K-배터리의 실제 사용량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은 23.1%로 수출점유율(2023년 1~3분기 기준 6.6%) 대비 3배 이상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안정적인 공급망의 구축을 위해 국내 이차전지 제조시설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배터리 제조시설에 30%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도 경쟁국과 동등한 투자 환경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채 기자

‘바이든의 중국 철강 관세 인상’ 한국 영향은?

‘쿼터제’로 대미수출 늘지 않고 제3국서 중국산 물량공세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가운데 이 조치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제3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쿼터제’에 묶여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인 ‘철강 232조’를 적용하자, 고율 관세 대신 ‘쿼터 축소’ 카드를 선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21년 200만t대로 축소됐다.

그런 만큼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올려 중국산 수입 물량을 축소하

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추가로 수출할 여지는 적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될 중국산 물량이 제3시장에 쏟아져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을 우리나라가 이어받을 수 있는 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신 중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길이 막힐 경우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과잉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중국의 대미 철강수출이 많지 않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을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남아도는 철강을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가 이미 악화할 대로 악화한 철강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요는 9억3천만t, 철강 생산량은 10억2000만t, 수출은 9000만t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1~2월에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작년보다 1.6% 증가하고, 수출은 36% 증가했다. 김보근 기자

자동차·배터리·철강, 선복 부족 등 수출 애로 호소

무협, ‘업종별 간담회’ 개최

자동차·이차전지·철강 업계 관계자들이 수출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무역협정·물류·세액공제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애로와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관련 기업, 협·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4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1차 주요 업종별 수출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김종재 포스코 상무보는 “자동차 강판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국내 생산 중간 제품을 북미로 보내 현지에서 가공 후 미국 내 완성차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2027년 7월 이후에는 원산지 기준이 북미 현지에서 조강된 제품으로 강화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강판용 철강재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정호 르노코리아 상무는 “홍해 사태 장기화로 물류비 증가와 자동차 전용선 선복 부족이 지속되어 공여지책으로 컨테이너에 차량을 적재해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실장은 “지난해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의 세액공제가 확대(최대 25%)되어 국내 투자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해당 세액공제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장기 투자가 필요한 미래차 분야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적기에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수출업계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현장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해 4월 25일 IT·반도체·바이오 간담회와 29일 조선·플랜트·석유·화학·엔지니어링 간담회를 비롯한 ‘주요 업종별 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채 기자

현존 모든 제품의 포장 신기술이 한 곳에 모이다

마이스를 만나다

경영전람 | KOREA PACK 2024



24회 국제포장기자재전 행사 포스터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포장 전시회’ 이미 일본을 넘어 아시아 최고를 자랑하는 ‘24회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24)’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펼쳐진다.

격년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직전 행사와 비교해 참여업체 수가 대폭 늘었다. 특히 외국 기업과 바이어가 대거 행사장을 찾는다. 주최 측은 전시면적 기준으로 ‘국내 1위’, 전문 전시회 가운데 ‘아시아 톱1, 세계 톱6’라고 행사를 소개했다. 킨텍스 1전시장 1~5호 그리고 2전시장 7~10홀에서 펼쳐진다.

●**킨텍스가 좁다** = 주최 측은 올해 참가업체 수로 1500개사를 내다봤다. 직전 대회 1117개사와 비교해 35%가량 큰 폭 늘었다.

주목되는 것은 외국기업의 증가다. 2년 전 256개사에서 올해는 500개사에 달할 것

이란 전망이다. 해외 기업 가운데는 국내에 지사나 사무소가 없는 곳이 360곳에 이른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방한하는 것으로, 행사의 국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최 측은 “국내의 포장 관련 대표 기업은 모두 참가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관객도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포장기자재 산업을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주최 측이 예상하는 참관객은 6만 명. 직전 대회의 4만6000여 명과 비교해 1만 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해외 참관객이 2500명으로 직전 행사 462명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국제포장기자재전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현재의 일산 킨텍스로 전시장소를 옮긴 후 행사가 더욱 커졌다. 2005년 킨텍스 개장에 맞춰 이동, 개장 첫 B2B 전시회였다. 행사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달리 많은 관람객이 찾으며, B2B 전시회의 대형화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행사 규모는 더욱 확대됐으며, 킨텍스 제1·2전시장을 모두 사용하는 국내 최초 민간 전시회로 발전했다.

●**글로벌 대표 패키징 단체 참여** = 주최 측은 전시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포럼,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전시와 함께 관련 산업계의 정보 교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힘을 쏟았다.

특히 국제기관과의 공조에 노력했다. WPO(세계패키징협회), APF(아시아패키징연맹), ISO(국제표준화협회) 등 패키징 글로벌 단체들의 행사들을 적극 유치했다. 이를 통해 행사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 바이어를 대거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유사한 행사를 연합 개최한 것도 행사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올해는 ‘ICPI WEEK 2024’라는 명칭으로 ▷제19회 국제제약·바이오·화장품기술전 ▷제18회 국

■ 특별 주제관

명칭	주요 전시 제품
ESG 지속가능 패키징 특별관	친환경 패키지 용기, 리사이클 솔루션 등
패키지 라벨 & 프린팅 특별관	친환경 패키지 인쇄기술과 제품, 솔루션 전시
우수 패키징 디자인 특별관	최신 트렌드 반영 우수 디자인 제품 전시
물류포장 스타트업 특별관 및 콜드체인 특별관	물류포장 스타트업과 콜드체인 물류서비스 및 제품 전시

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제16회 국제화학장치산업전 ▷제14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제14회 국제물류산업대전 ▷제9회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 ▷제2회 국제콜드체인산업전을 함께 개최한다.

주최 측은 “패키징 산업의 수요 산업군에 속하는 제약, 화장품, 식품, 화학 산업 종사자들이 모든 밸류체인의 제품과 기술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전시회를 발굴하여 개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매년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규모가 커져 지금과 같은 대형 국제전시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4개 주제별 특별관과 120개 세미나** = 이번 행사에서는 ▷ESG 지속가능 패

키징 특별관 ▷패키지 라벨 & 프린팅 (Package Label & Printing) 특별관 ▷우수 패키징 디자인 특별관 ▷물류포장 스타트업 특별관 및 콜드체인 특별관 등 4개의 특별관이 운영된다.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부대행사로는 포장·물류, 바이오·환경·분석과학·화학·화학장치, 제약·바이오, 화장품 등 4개 분야별로 120개가량의 세미나와 콘퍼런스가 예정돼 있다. 포장·물류 분야에는 콜드체인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세미나가 주목된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AI 도입 방안 및 사례 세미나’ 화장품 분야의 ‘화장품 신기술 신제품 연구개발 동향 세미나’ 등도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배 기자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포장기자재전’이 올해는 참여 외국 기업과 바이어가 큰 폭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진은 2022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3회 국제포장기자재전’ 행사 전경. [사진=경영전람]

[인터뷰] 김길수 경영전람 전무

“세계 최고 포장 전시회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것”

“이번 행사를 위해 방한하는 기업이 25개국 360여 개 사에 달합니다.”

행사 공동 주최기관인 경영전람의 김길수 전무는 세계 최고의 포장 전시회와 비교해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등을 방문해 홍보 로드쇼를 전개하는 등 공격적으로 행사를 알린 결과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전무는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가공, 포장, 물류 기술을 접할 수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을 대체하는 포장기술이 급격히 발달한 만큼, 비용 절감방안으로 포장 자동화를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규모가 커짐에 따른 관람객 불편 축소에도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웹 기반 ‘e부스배치도’다. 전시장 곳곳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킨텍스 전체 조감도와 함께 현재 자신의 위치가 나온다. 원하는 기업 부스를 검색하면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가는 길을 안내받는다. 김 전무는 “설문조사 결과, 원하는 제품과 부스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참관객이 많았다”며 “e부스배치도는 원하는 제품, 원하는 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참관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최 측은 킨텍스 1·2전시장 이동 편

의를 위한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트렌드로 ‘ESG 포장기술’을 꼽았다. 김 전무는 “플라스틱을 대체한 포장용품, 토양에서 녹는 플라스틱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만날 수 있다”며 “글로벌 포장업체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환경을 포함한 ESG”라고 밝혔다.

국제포장기자재전을 글로벌 톱5 전시회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 전시 공간 한계로 인해 글로벌 톱6 평가를 받는다. 현재 추진중인 킨텍스 3관의 설립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 전무는 “한국·일본·대만·인도가 참여하는 국제 비즈니스 포럼과 같이 국제 포장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포럼과 콘퍼



김길수 경영전람 전무

런스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국제포장기자재전을 2030년에는 글로벌 톱5 안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준배 기자

‘발모’를 세계 공용어로... 글로벌 탈모 치료시장 도전

금주의 무역인 | 조진형 카론바이오 대표



조진형 카론바이오 대표가 경기도 용인 카론바이오 연구소에서 성분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카론바이오】



카론바이오는 발모 샴푸에 이어 발모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사진은 조진형 카론바이오 대표(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경기도 용인 연구소에서 연구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카론바이오】

탈모인의 희망인 발모를 돕는 샴푸 ‘C3’를 개발한 카론바이오는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에 ‘다발모(DA BALMO)’ 상표 출원을 마쳤다. 이 회사 조진형 대표는 “우리 제품의 발모 효능을 확신한다”며 “‘발모’를 만국 공용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샴푸 C3는 하루아침에 개발된 것이 아니다. 대기업 출신인 조 대표가 기술 인수를 통해 필생의 역작으로 개발했다. 시장 입증에 위해 긴 시간을 투입하기도 했다. 회사는 올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두드린다. 최근 말레이시아 흡소핑에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 만 올해 약 200억 원의 수출을 기대한다.

●**퇴사 후 찾아온 기회** = 조 대표는 2010년 퇴사할 때까지 20년간 현대차그룹에서 재무와 기획업무를 담당했다. 퇴사 결정은 건강 악화 때문. 조 대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피가 토마토케첩 같았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퇴사를 강력히 제안했다. 그의 나이 47세였다.

3년 넘게 건강 회복에 집중하던 조 대표는 지인 소개로 한 사업가를 만났다. 그는 발모에 효능이 있는 샴푸를 개발했다며, 조 대표에게 기술 인수를 제안했다. 샴푸는 일반 용기에 담긴 시제품 상태였다. 조 대표는 처음 신뢰하지 않았다. 다수의 발모 샴푸가 시장에 나와 있었지만, 효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물 받은 샴푸는 집안 구석에 놔뒀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척이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에, 샴푸를 건넸다. 얼마 후 친척으로부터 ‘발모 효과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설마 하며 나머지 샴푸도 주변 탈모인들에게 나눠줬다. 조 대표는 몇 달 후 화들짝 놀랐다.

“지인들에게 샴푸를 주면서 혹시나 몰라 머리 윗부분의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2~3개월 후 다시 만나서 비교해보니 정말 머리가 풍성해진 것이었습니다. 사용한 사람들도 ‘머리카락이 나고, 힘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 대표는 바로 개발자를 찾아갔고, 기술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 3개월간 도서관에 처박혀 관련 서적을 읽었다. 이 때 200권이 넘는 책과 논문을 읽었다고 조 대표는 밝혔다. 그리고 연구소를 세우고 샴푸 개발 20년 경력의 개발자를 영입했다.

조 대표는 “연구해보니 샴푸에 들어있는 화학성분들이 탈모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며 “부산물도 화학 성분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이 무려 6년여가 소요됐다. 완성품은 2019년이 되어서야 나왔다. 조 대표는 “첨가물 90%가량이 바뀌었다”며 “성분 하나 교체할 때마다 부작용 테스트를 하다 보니 긴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독일 더마테스트 이어 국내 임상 확인** = 2019년 내부 실증을 마친 조 대표는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을 거쳐 발모 샴푸 ‘C3’를 출시했다. 천연물질로만

개발된 식물 복합추출성분인 ‘카본솔루션’이 68% 함유됐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만도 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발모 샴푸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검증된 기관의 인증을 통해 신뢰를 얻고자 한 것. 그래서 선택한 곳이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독일 더마테스트였다.

샴푸와 헤어토닉의 안전성 등에 대한 입

상시험 결과, 국산 제품 최초로 최고 등급인 엑셀런트(Excellent) ‘5성 인장’을 받았다. 탈모 예방 및 발모 효능 임상시험에서는 탈모 감소율 54%, 성장기 모발 9% 증가, 휴지기 모발 10% 감소, 1cm²당 모발밀도 증가율 23%라는 성과를 얻었다. 여기에 성모 22개 증가, 모발 굵기 평균 증가율 10% 등을 기록했다. 1년여 테스트를 거친

결과였다.

지난해에는 또 하나의 입증 결과를 얻었다. 성균관대 연구팀이 진행한 ‘탈모증 개선 및 모발성장’ 연구에서 샴푸·헤어토닉의 주성분이 모낭 피부 유두세포의 성장을 유도하고 탈모증을 개선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파머스틱스(Pharmaceutics)’에 등재됐다. 조 대표는 “발모샴푸에 대한 불신을 깨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중국서 올해 200억 원 판매 목표** = 회사는 올해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얻었다. 연초 말레이시아 흡소핑에 론칭해 300 세트가 완판 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추가 방송을 준비 중이다. 조 대표는 “더마테스트 결과와 국내 병원 임상 결과가 호평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메이저 유통사와 손을 잡았다. 1년간 현지 테스트를 마치고 제품 등록 작업 중이다. 베트남 대표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상반기 중 판매 예정이다.

가장 기대되는 곳은 중국시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중국 탈모 인구수는 2억5000만 명에 달한다. 2021년에 화장품법이 바뀌어 발모샴푸와 같은 특수류(기능성)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 대표는 “2022년부터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마지막 서류작업만 남았다”며 “지금으로서는 우리 제품이 중국에서 첫 번째 기능성 샴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만 올해 20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대한다”며 “이에 맞춰 충분한 원재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카론바이오는 2022년 중국에 합작 법인을 세웠다.

조 대표는 발모 샴푸에 대한 불신으로 임상실험조차 맡기는 것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불신을 받을 때마다 ‘오기가 생겼다. ‘미친놈’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인류에 이런 제품 하나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탈모 샴푸에 이어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출연연구소, 대학과 공동으로 ‘미세노노액적 제조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한 상태다. 발모 샴푸에 사용된 ‘카본솔루션’의 핵심 성분이 원활하게 두피에 흡수될 수 있도록 직접 뿌리는 형태의 상품이다. 조 대표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회사 비전으로 ‘자연과 사람, 아름다움과 건강의 조화인 자연체질의 순수 아름다움(美) 추구’라고 소개했다. 그는 “천연성분으로 만든 샴푸만이 탈모를 예방하고 발모까지 효능을 발휘한다”며 “세계 탈모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상품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회사는 해외 주요국에 ‘다 발모(DA BALMO)’ 상표를 출원했다. ‘발모가 된다’ ‘많이 머리카락이 난다’는 의미다. 김준배 기자

유독 출렁이는 원/달러...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

환율, 17개월 만에 달러당 1400원 진입... 다른 주요통화들 대비 변동성 커 에너지 대외의존도 높고 한은 금리대응 미온적... 약세인 위안화와도 커플링

최근 지정학적 위기 상황과 미 경제지표 호조 속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가 다른 주요통화들보다 변동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터치했다.

달러당 1400원 선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1월 7일 장중 1413.5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그간 원/달러가 1400원대로 진입한 것은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하반기 팬데믹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쳤을 때 등 위기 상황뿐이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견조한 경기 및 기대 이상의 인플레이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달러 강세를 유발한 영향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이란은 이스라엘에 100대가 넘는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주시리아 이란영사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쿠드스군 고위 장성 2명 등 12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정세에 긴장이 고조됐다.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가 기대를 웃도는 가운데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다. 최근 미 상무부는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096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3%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이다.

소매판매는 소비자 지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번 수치는 미국의 소비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6월이 아닌 7월이나 9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하 횟수도 3회가 아닌 2회가 될 것이라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 금리 인상 지연 전망과 중동 정세 불안은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4월 중순 들어 달러인덱스가 연초 대비 4.6% 가까이 상승하고 월가 공포지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NBC에 따르면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연초인 1월 11일에는 12.44에 불과했으나 4월 15일 전장 대비 1.92p(11.09%) 급등한 19.23에 마감하며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CNBC는 이를 보도하며 “월가가 향후 며칠 내지는 몇 주 동안 더 많은 가치 변동을 예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원화, 31개 통화 중 가장 큰 폭 하락 = 이처럼 달러화 가치의 고공행진으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 또한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 통화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문제는 그중에서도 원화가 특히 달러화 대비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4월 들어 2주간 원화 가치는 약 2% 하락하면서 주요 31개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당장 전쟁 중인 러시아 루블(-1.69%)과 이스라엘 셰켈(-1.54%)보다도 더욱 통화가치 하락 폭이 컸다.

지난 3월에도 원화는 주요통화 중 튀르키예 리라화를 제외하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 최근 미 경제지표 호조와 기대 이상의 인플레이로 인한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 이후에도 유로화, 엔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러강세 속 원화가 다른 주요통화들보다 큰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는 한국 경제가 유가 불안에 유독 취약하다는 점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유가 불안,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가 달러 강세 현상을 견인하고 있다”며 “유가는 물가 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 있고 이는 경기침체 리스크를 재소환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원화 가치는 유가에 유독 취약하다”며 “원화 가치가 유독 여타 통화 가치와 비교해 하락 폭이 큰 이유는 (한국이) 유가 등 에너지 가격에 가장 취약한 경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추가 상승 혹은 불안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물가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이고 이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 그림자, 즉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둘째로는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중앙은행과 미 연준 금리정책 간 탈동조화 현상 또한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예상과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정책 차별화 움직임이 달러강세 현상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시사하면서 환율 급등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금통위는 금리

를 동결하면서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확신들이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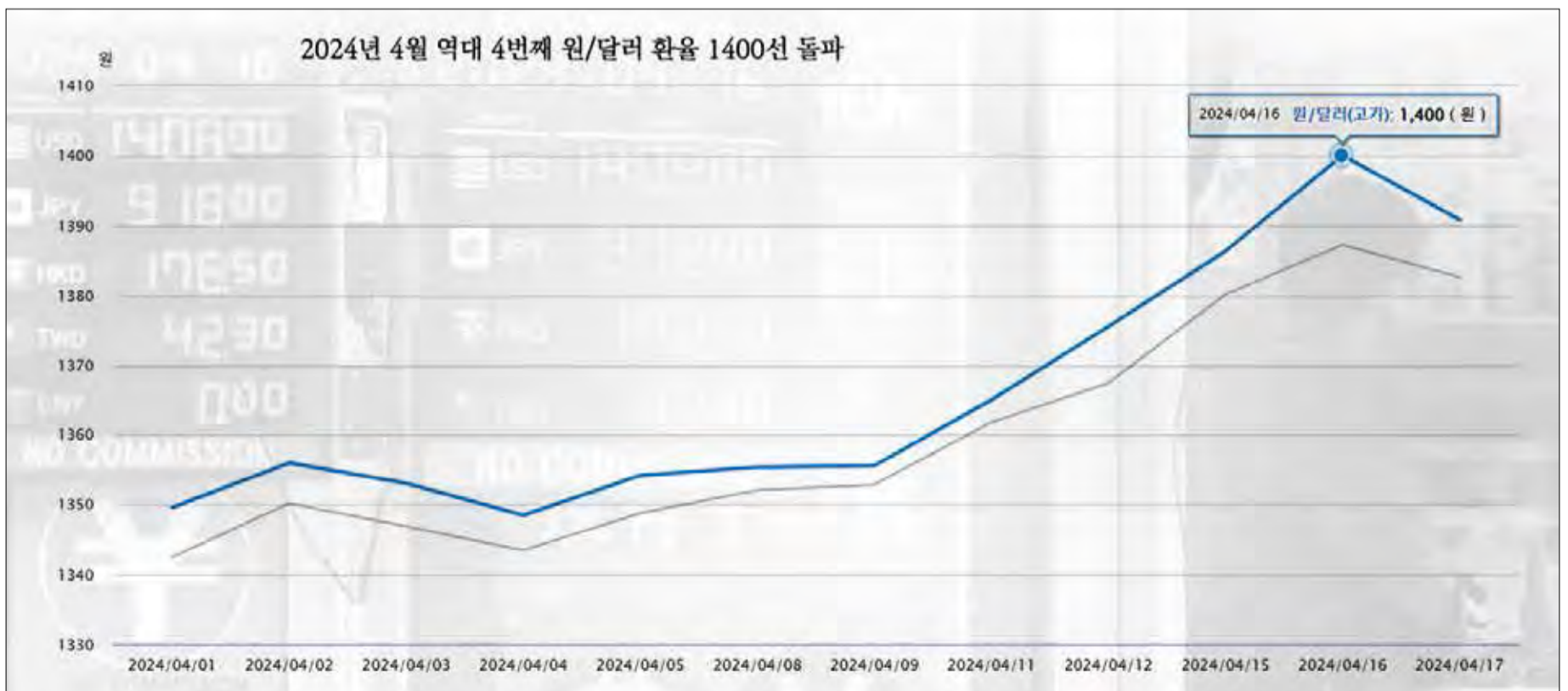
그러나 박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약세 심리를 더욱 부추긴 것은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뉴앙스의 한은 총재 발언 때문”이라며 “현 환율 수준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한은 총재 발언은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마저도 열어 주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은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넘어가는 상황임에도 과거만큼 우려가 크지 않다고 시사했고 이는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며 “사실상 현 환율 수준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외환시장은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원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프록시(Proxy, 대리) 통화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안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런민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제약되면서 최근 삼성증권은 연말 위안/달러 환율 전망을 달러당 7.2위안으로 상향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달러가 1400선을 돌파한 16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실물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각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석유·가스, 무역, 공급망 등 각 분야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전개되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피해발생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 지원 등 대책을 준비 중이다. 김영채 기자





하모니렌트카
장기렌트



하모니렌트카
단기렌트



렌트의 가치를 더하다

하모니 렌트카

[HARMONY RENTCAR]

😊
 장기렌트 문의
 1661 - 9763
 단기렌트 문의
 1599 - 1521

실시간 견적으로 바로 확인하는 렌트비용!
 자동차세, 취득등록세, 보험료의 추가부담은 없이!
 인기차종 즉시출고!

만 26세 이상, 소득확인 3개월, 운전경력 1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www.harmonyrentcar.com

하모니렌트카
HARMONY RENTCAR

무역상담의 계절... 바이어 548개사 방한해 수출상담

무역협회 · KOTRA, '수출붐업코리아' 공동 개최 국내기업 3000개사와 7000건 비즈니스 상담

해외 바이어 548개사가 방한해 국내 수출기업 약 3000개사와 상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양대 수출지원 기관인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최초로 공동 개최하는 수출 상담회여서 눈길을 끌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KOTRA와 함께 4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수출 붐업 코리아(KITA X KOTRA Mega Biz Trade Show)'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사,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인프라·에너지, 서비스·ICT, 바이오·의료 분야의 해외 바이어 548개사가 방한해 국내 기업 3000여개사와 약 7000건에 달하는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약 150여건의 수출 및 양해각서(MOU) 계약이 체결돼 약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협회는 B2B 수출 플랫폼 '트레이드 코리아(tradeKorea)' 홍보관을 운영하며 품목별 우수 상품 전시를 통한 내방 바이어 대상 수출마케팅과 국내 우수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1대1 온라인 수출 상담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초보 수출기업 대상

마케팅 세미나 ▷이커머스 활용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서비스기업 수출 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수출 기반 확대와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행사장에는 해외 바이어들이 주목할 만한 170여개 혁신제품을 전시하는 '미니 쇼케이스'도 마련됐다. 쇼케이스에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편두통 전자약 ▷사람 손과 유사한 동작 감지기를 탑재한 협동로봇 ▷동영상 생성형 AI솔루션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편집 소프트웨어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이 전시됐다. 또한, 초청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한식 체험 공간을 마련

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김밥, 로봇 조리 삼겹살, 로봇 추출 커피 시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에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해외인증 지원단, 무역협회 등 다양한 컨설팅 부서가 운영되며 주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직접 제품 생산 과정을 참관하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됐다. 폐막 이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수출 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며 한국문화 체험 등 국내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협업해 최초로 개최한 대규모 수출상담회"라며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양대 기관이 합심해 대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행사 개막식에는 안덕근 산업부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상담 현장을 참관하고 격려하며 수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붐업 수출 상담회를 계기로 약 1.16억 규모의 수출 계약과 MOU 체결이 사전 합의되었으며, 현장 및 후속 계약까지 더하면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 마케팅 예산 1조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교부, 산업부와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업체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채 기자



4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수출 붐업 코리아'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548개사가 방한해 국내 수출기업 약 3000개사와 700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요소·흑연 등 다변화 추진"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관련 국내 절차를 거쳐 4월 17일 국내에서 발효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IPEF 공급망 협정 발효일을 맞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 이차전지, 기계 업종 등의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IPEF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요소, 흑연, 희토류 영구자석의 수입 다변화 등을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산업 공급망 정책을

지원하는 공급망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며 "업계 차원의 세부 활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작년 5월 협상이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평상시에는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공급망 위기 상황 발생 때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가동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김보근 기자

킨텍스, 인도 '대한민국산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킨텍스는 인도 뉴델리의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에서 오는 11월 21~23일 열리는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2024, 이하 코인덱스)'에 참가할 기업을 홈페이지(koindex.kr)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인도 시장에서 대한민국 전시회로는 최초 진행되는 것으로 안전, 건축, 환경, 식품, 뷰티, 모빌리티 등 국내 유망산업이 총망라된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최적의 수출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또, 코인덱스에는 인도뿐 아니라 중동 등 인근 국가 구매자들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기아(모빌리티), 롯데웰푸드(식품) 등 국내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참가를 확정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

인다고 킨텍스는 설명했다.

킨텍스는 코인덱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위해 참가 신청부터 물류, 전시장 현장 운영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야쇼부미 전시장은 킨텍스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참가기업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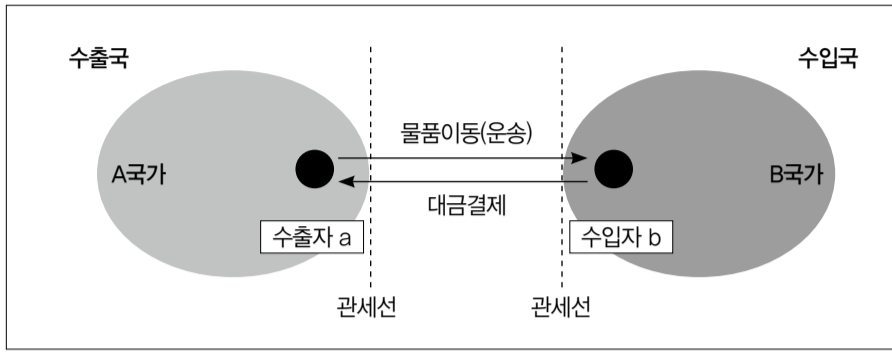
이재울 킨텍스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거대한 인도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킨텍스가 전시회 노하우뿐 아니라 직접 야쇼부미를 운영하고 있어 최고 수준의 전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쇼부미 전시장은 기존 IICC로 불리었으나 개장식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직접 '궁지의 땅'이라는 뜻을 담아 야쇼부미로 정식 명칭을 확정했다. 김보근 기자

무역은 국경을 넘어 상품·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



■ 국제무역 개념도



최근에는 무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B2C(기업으로부터 소비자로 직접 거래) 무역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참 쉬운 게 무역이다. 무역은 한마디로 '국가 간 상거래'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 등을 사고파는 행위이다.

여기서 '다른 나라로부터 사는 행위'는 수입이고 '다른 나라에 파는 행위'는 수출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수입자(수입업체), 수출자(수출업체)다.

학술적인 용어를 굳이 동원하자면, 무역은 '한 나라의 관세국경선을 통과하는 상품(이하 서비스, 전자적 무체물 등 포함)의 이동' 또는 '나라와 나라를 달리하는 개인(또는 기업) 간의 상품과 대가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과 대가의 교환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국내거래이고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뤄지면 국제거래(International Transaction)가 되는데 이 국제거래가 무역인 것이다.

여기서 무역의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무역은 나라를 달리하는 '격지기간 거래'이자 '비대면 거래'이다. 쉽게 말하면 '멀리 떨어진 나라의 거래상대방과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거래'이다(물론 협상 등은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무역은 서류에 의한 거래이다. 물품 등의 제조와 조달은 수출자가 하게 되고 이의 처분은 수입자가 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물품의 이동은 운송업자가, 대금의 이동은 은행이 맡게 된다. 이때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와 신용장 등의 금융서류 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역은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무역은 국제거래인 만큼 거래당사자간 언어, 관습, 관련법규 등이 서로 달라 일정한 국제규칙을 정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인코텀즈(Incoterms) 등이 바로 이런 국제규칙이다.

네 번째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

은 상호간의 이익을 전제로 한 거래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을 국가 간에 이동시키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를 이익으로 향유하는 국제상거래인 것이다.

다섯 번째로 무역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거래이다. 모든 거래에는 위험이 따르겠지만, 무역의 경우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상대방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상품이 분실 또는 손상될 위험이 있으며 사고팔 때의 시차로 인해 가격변동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상대방 국가가 전쟁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처할 위험도 있고 거래상대방인 무역업자가 사기꾼일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할 보험과 같은 각종 장치가 필요하다.

이상은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거래, 특히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 무역에 대한 설명이다. 최근에는 무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B2C(기업으로부터

터 소비자로 직접 거래) 무역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C2C(소비자로부터 소비자로 직접 거래), C2B(개인으로부터 기업으로 직접 거래), O2O(Online to Offline) 까지 생겼다.

우선 B2C 비즈니스는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무역의 큰 줄기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amazon)이나 티몰(tmall), 쇼피(shopee) 등에서 이뤄지는 비즈니스다. 한국의 A기업이 아마존에서 화장품을 파는데, 미국의 소비자 B가 이를 구매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무역이 이뤄진 것이다. 한국의 소비자 C가 아마존에서 미국 D기업의 건강식품을 구매해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판매자 A기업과 D기업은 수출자요, 구매자인 소비자 B와 C는 수입자가 되는 것이다.

C2C, C2B, O2O 비즈니스는 아직은 내국 거래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로벌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영채 기자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수출.. 하고싶은데 궁금한 건 너무 많다?
이젠 고민 말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해결하세요!

TradePro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란?

손쉽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무역상담 플랫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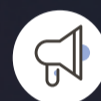
전화상담



화상상담



채팅상담



오픈상담



AI자문

접속방법

Tradepro.kr



- 1) PC / Mobile / Tablet : tradepro.kr 바로접속!
- 2)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kita.net) 접속 후, TradePro 클릭!

상담분야



무역실무



관세/통관



계약/클레임



세무/회계



특허/상표



해외인증



외환/환리스크



온라인마케팅



창업컨설팅



지역전문가



물류/운송



인력관리



해외마케팅



전자상거래



기술상담



기타분야



DX컨설팅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안전수출 가이드 07 수출의 유형과 수출절차

바이어 발굴부터 수출대금 수령·관세환급까지

“오직 모든 일들은 준비가 있어야 하는 법이니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惟事事 乃其有備 有備無患).”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유명한 ‘유비무환’의 경구다.

앞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입자와 수입국 신용도를 조사하고, 무역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수출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초보수출자는 수출절차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수출절차는 크게 보면 바이어를 발굴해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금융을 조달해서 수출물품을 확보하고, 선적을 해서 수출을 이행한 후에 만기에 수출대금을 수령하면 대략 일단락된다. 이후 관세 환급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수출절차마다 관련되는 지원기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출의 정의와 유형 =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제2조에서는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하여 ‘물품 등’으로 정의하고, 이 물품 등의 수출입을 ‘무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를 ‘무역거래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물품의 수출뿐 아니라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도 수출의 정의에 포함된다. 당연히 이런 형태의 수출도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수출은 직수출과 간접수출로 구분된다. 직수출은 국내 수출자가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로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서를 토대로 수출금융을 조달할 수 있다. 국내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국내 수출기업에게 판매하고, 국내 수출기업이 이를 다시 해외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국내 생산자(판매자)가 국내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간접수출이라 하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토대로 무역금융, 무역보험(보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수출을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무역보험공사(무보)의 대표 상품인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약관에서 구분하는 수출의 유형이다. 무보는 약관에 따라 중계무역이나 재판매거래도 담보하고 있다.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물 수출하는 거래 포함)이다.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 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이다.

●재판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 등(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 등이 동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이다.

위 정의에서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물건을 수입하되 국내 통관은 하지 않고 수출하는 형태로 중계무역자는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을 모두 체결하고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한다. 이 경우에 ‘수출대금(FOB) - 수입대금(CIF)’만이 대외무역법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한편 중계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중계무역상이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중계수수료만을 수취하는 형태이다. 중계무역과 마찬가지로 물품은 중계무역자의 국가로 반입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이동한다. 이 중계무역은 대외무역법상 수출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출 절차

1) 시장조사 및 바이어의 발굴 = 시장조사를 거쳐 목표시장을 정한 후 잠재 바이어를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벌인 후 최종적으로 거래할 바이어를 선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KOTRA, 한국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수출계약 체결 = 거래조건은 수출자가 선적 시까지 책임지는 FOB, 또는 여기에 해상운송비와 적하보험료가 포함되는 CIF 조건이 주로 사용된다. 결제조건에는 신용장방식, T/T 등 송금방식, 추심방식(D/A, D/P) 등이 있으나 주로 T/T 외상거래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표준적인 수출계약서에는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가격조건(Terms of Price),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클레임 조항(Claim Clause),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준거법(Governing Laws) 등이 포함된다.

실무상 정식 계약서(Sales Contract) 없이 공급확약서(Offer Sheet),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등이 계약서를 대신하기도 한다. 즉 수출자가 보내온 공급확약서, 견적송장에 수입자가 서명을 하거나, 수입자가 보내온 구매주문서에 수출자가 서명을 하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초기 단계에서 수출자가 잠재 바이어에게 거래제안서(Business Proposal)를 보내면서 거래가 시작되기도 하고,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의 스펙,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물어보는 조회 서한(Inquiry)을 보내서 거래를 타진하기도 한다. 이 인콰이어리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무역사기 가



이미지=아이클릭아트

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 상대의 상호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도 메인 등을 면밀히 살펴서 명의도용 사기 여부를 가려내야 하고, 무료 샘플을 요구하고 잠적할 수도 있으니 인콰이어리를 한 상대에 대해 KOTRA나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신용정보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신용장 거래라면 신용장 초안을 입수해서 수출계약 내용과 일치 여부,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수출을 이행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신용장 유효기간과 서류 제시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3) 수출승인·허가 =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수출승인, 요건확인,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4) 수출금융과 수출물품의 조달 = 수출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이 확실시 되면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초보수출자라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나 신보·기보 보증서를 담보 삼아서 무역금융, 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이행자금이거나 수출성장자금을 활용해도 좋다.

5) 수출검사 = 수입자가 수출물품의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바이어의 요청으로 수출자가 하거나, 바이어가 대리인 통해서 또는 바이어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6)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 = 초보 수출자라면 코리아쉬핑가제트(www.ksg.co.kr) 등을 참고해서 포워딩업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무역보험의 가입 = 결제조건이 위험이 따르는 무신용장방식 외상거래인 경우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8) 수출신고 및 수출통관 = 수출통관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시 물품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FOB 기준 200만 원 초과 시 신

고, 200만 원 이하도 수출실적 필요 시 신고 가능)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취득한다. 수출신고는 관세사에게 의뢰하거나 수출자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로 직접 할 수도 있다. 수출신고 과정에서 수출신고물품검사는 일반적으로 생략되나, 예외적으로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세관의 검사일정에 따라 선적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다.

9) 화물선적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선하증권(B/L)을 발급받는다. 최근에는 수출승인이나 운송 등의 수출 업무는 관세사무소나 복합운송업자(포워더)가 대행해주고 있다.

10) 운송서류의 구비와 대금 회수 =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구비해서 은행에 제시 후 수출채권을 유동화(Nego)해서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받은 수출금융을 상환한다. 이러한 네고는 수출대금의 결제가 아닌 대출이다. 그러니 만기에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수출자는 자기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11) 수출대금의 만기 수령 = 외상수출거래의 경우 결제기일 만기에 수출대금을 수령한다.

12) 관세 등의 환급 = 수출 신고 후 2년 이내에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가 세관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한다.

13)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대응 = 무역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무보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출자 귀책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다. 무역보험 미부보 건이라면 무보에 미회수채권 회수대행을 의뢰한다.

대략적으로 수출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회에서는 가상의 초보수출자의 수출 과정을 소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오주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문위원 happyjojn@gmail.com



라이시저 전 대표는 지난해 출간한 저서 '자유무역은 없다'에서 달러가 고평가된 게 분명하다며, 미국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은 로버트 라이시저 전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트럼프 캠프는 '화폐전쟁' 준비 중?... 강달러 제동

전 USTR 대표, 미국 무역적자 축소 위해 인위적 달러화 약세 모색
'플라자 합의' 재현되나... 재계·산업계는 물론 공화당 내부서도 우려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고문들이 달러 가치를 절하해 미국 수출을 촉진시키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출신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잠재적인 재무장관 후보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그 주역이다.

4월 15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τικο는 익명의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로버트 라이시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정책 고문들과 함께 이러한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타국에 자국의 통화가치를 변경하도록 압박해 의도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를 절하함으로써 달러 약세가 국제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 가격을 낮추고 무역 적자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 소식통은 "(고평가된 달러가) 무역 적자에 기여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 일부 인사에겐 통화 재평가가 잠재적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

고 전했다.

라이시저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할 경우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정책을 주도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힘썼으나 미국은 여전히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달러 약세가 수입품의 소비자 물가 급등과 타국의 보복을 유발하고, 러시아와 이란 등 적대국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 역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월가나 대형 소매유통업체는 물론 워싱턴의 지지층 등에서도 강한 반대가 나올 전망이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달러화 약세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유통업체는 달러 약세로 미 소비자들의 가치분 소득이 줄어들면 매출 또한 줄어들 것이 걱정이다. 공화당의 국가안보 강경파들은 달러 약세로 인해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미국

의 제재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실효성은 사실상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좌우되기 마련인데, 만일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제제재 조치에 다른 통화를 쓰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결국 미 재무부는 제재 대상국에 대한 자산동결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달러 제재를 우회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의해 중국 위안화의 국제무역 결제 비중은 높아진 바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한 관료는 폴리τικο에 미 달러 가치 절하 문제를 둘러싸고 무역적자 감축과 제재조치의 실효성이라는 2가지 목적이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1세기의 플라자 합의 꿈꾸는 라이시저 = 나아가, 미 정부가 환시장에 공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새로운 무역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화폐전쟁'이다.

이론상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적 관세 부과처럼 일괄 관세 부과 정책을 펴는 방식으로도 타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다.

하지만 라이시저 전 대표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플라자 합의(Plaza Accords)'처럼, 복수의 외국 정부들과 일괄 타결(grand-bargain) 방식으로 환율 관련 합의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자 합의는 지난 1985년 레이건 정부가 일본 및 유럽 주요국들과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독일·일본·영국 등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과 모여 미국 달러를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절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일컫는다. 당시 이 합의는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제공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한 관료는 폴리τικο에 당시 이런 다자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인상 가능성이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므로,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유사한 합의를 추진한다면 관세를 선

트럼프가 화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는?

전문가 “통화 가치 절하, 바닥 향한 경쟁… 거기서 이길 수 없어”

최근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달러 가치 절하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조지 메이슨 대학 수석연구원인 크리스틴 맥다니엘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 수출을 위한 달러 통화 가치 절하가 효과적이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로 미국이 달러를 약세화해도 다른 나라들은 쉽게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국가에서는 금리를 낮추거나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국 통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이다. 미국이 더 저렴한 수출 측면에서 평가절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수입품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는 미국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부는 국내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다른 일부는 증강 및 재

수출되는 제조에 들어간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은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하게 되거나, 미국 수출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또는 둘 다 조금씩 그렇게 될 것이다.

셋째로 어떤 국가가 자국 통화가 강세를 띠지 않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보낼 때, 또는 라이트하이저가 경쟁력과 관련된 이유로 미국 달러를 낭비한다면, 모든 미국인 주택 소유자와 모든 미국 기업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맥다니엘 수석연구원은 “통화 가치 하락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들릴 수 있다”면서 “다른 모든 요인이 동일하다면 미국 달러의 약세는 미국의 수출을 더 싸게 만들고, 수입을 더 비싸게 만들며, 잠재적으로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며,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의도한 것과 반

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줄일 수 있는 길로 국내의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재정 지출 감소, 주요 무역 상대국의 소비자 지향적 성장, 미국 가계 저축률 증가, 미국 수출, 특히 서비스 수출에 대한 해외 시장 개방이 포함된다. 그는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인들을 더 악화시킬 것이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맥다니엘 수석연구원은 “통화 가치 절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이며 거기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단기적으로는 히트를 치겠지만 몇 달 안에 페널티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율이 일반적인(경제) 펀더멘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평가절하는 한 국가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게임”이라고 주지했다. 김영채 기자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20년 6월 17일 미국 워싱턴=AP/뉴시스

등 거나

에 정통한 전직 행정부 관리가 말했다. 그러나 라이시저와 나바로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월가의 동맹 관계자들의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고도 소식통은 덧붙였다.

라이시저 전 대표는 지난해 출간한 저서 '자유무역은 없다'에서 달러가 고평가된 게 분명하다며, 미국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러한 기조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며, 선거 전후 변경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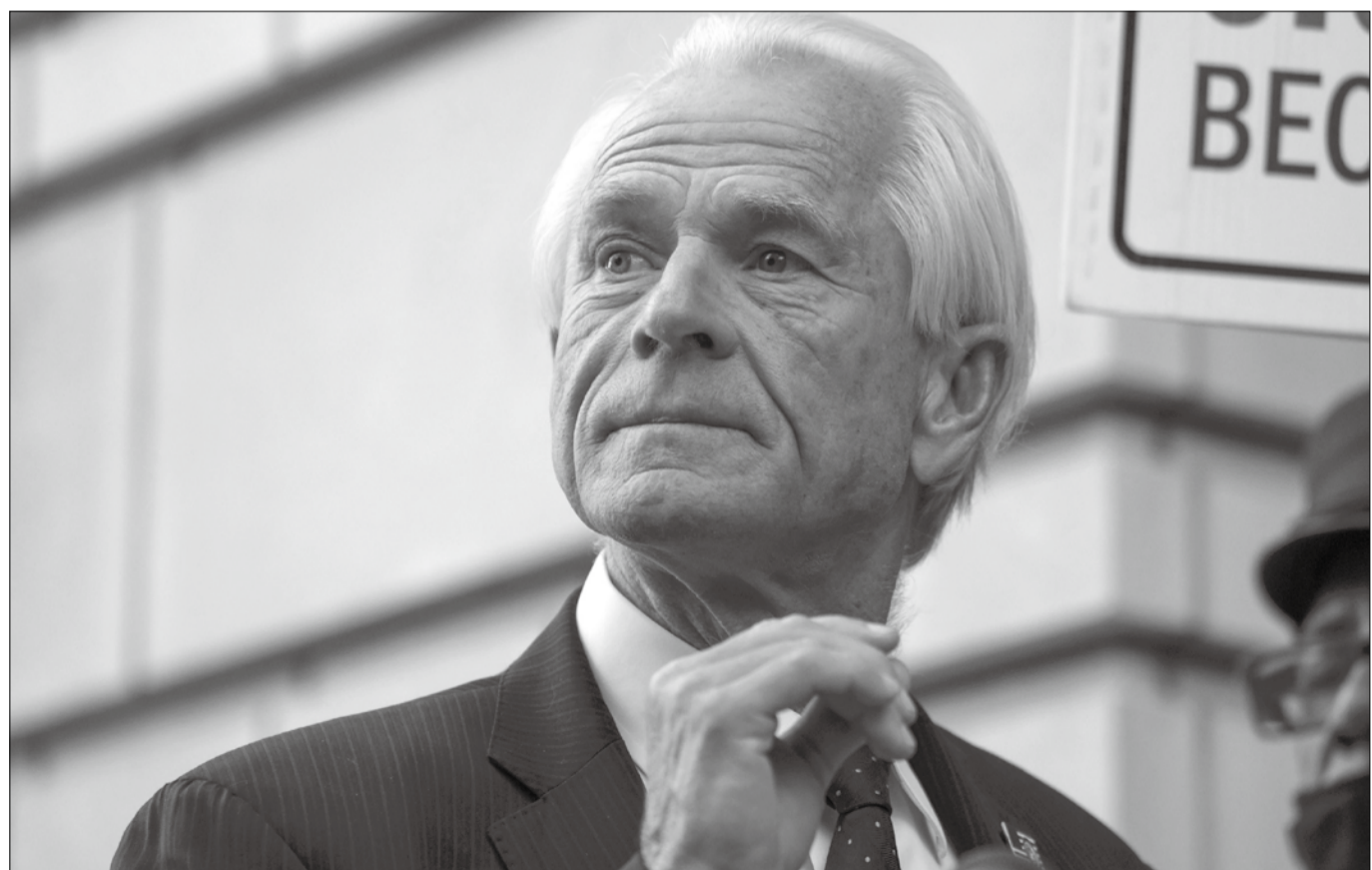
다고 강조했다. 어떤 소식통은 다른 사람이 장관이 될 경우 달러 가치 평가 절하로 무역적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라이시저 전 대표도 일방적이거나 관세 위협을 동원해 외국과 협상을 벌여 달러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이 수출품을 더 싸게 만들고 세계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부당하게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가 이

미 중국 경제에 관세를 부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그의 백악관은 라이시저가 오늘날 고려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책으로 통화 불균형을 해결하는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않았다. 뒤이어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지속하지 않았다.

제이크 콜빈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회장은 폴리티코에 “질서 있고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미국 기업에 미칠 궁극적 영향은 불확실하다”며 “달러 약세를 추구하면 글로벌 통화 인플레이션과 무역 전쟁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채 기자



로버트 라이시저 전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백악관에 신설된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자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었던 피터 나바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자주 통화 평가절하 문제를 제기했다고 관련 논의에 정통한 전직 행정부 관리가 말했다. 사진은 나바로 전 국장이 지난해 9월 5일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관련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을 무시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죄로 재판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AP/뉴시스】

샐러리맨 30년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97

떨리는 심장과 뛰는 심장

중요한 일은 맡을 때 프로와 아마추어는 비슷하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반영한 말이 아마추어는 어려운 일을 앞두면 '심장이 떨린다'고 움츠리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프로는 성과와 도전을 기대하며 '심장이 뛰다'면서 희망을 쏟는다.

환경과 관계없이 일하는 직원의 대응이 다르면 결과도 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겉으로는 미운오리새끼로 치부되는 부서나 일이 나중에 백조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원래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윤을 낼 수 없는 사업을 반전시켜 백조(대박 프로젝트)로 만드는데 심장이 뛰는 리더십과 자세가 필요하다. 희망찬 자세가 희망을 만들고 패배 의식이 실제로 패배를 부르기 때문이다.

기업에게 어려운 때가 기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선, 밖으로 보면 좋은 기업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인수합병을 할 수 있고, 경쟁사가 줄거나 설사 있어도 그들의 마케팅 파워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사 안으로 보면 기업이 어려울수록 직원 간에 단결할 가능성이 커지기(동물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모두가 끼안는 것과 같은 이치) 때문이다.

리더나 현장 직원이 가슴이 뛰는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고가 냉철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냉철한 사고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구도가 간단한 드라마도 한 번에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하나 둘 파악하여 몇 번 봐야 전체를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직원도 훈련을 통해 한 번만 봐도 과거에 대한 세밀한 내용은 물론 향후 전개 과정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 단번에 핵심을 짚어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다. 보고서를 처음 살펴볼 때에도 다른 사람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리스크를 꼼꼼하게 재검토하여 맥을 짚어내야 한다.

자료나 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선 '숫자'에 익숙해져야 하고 '그러나'와 '단'과 같은 역접형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내용을 강조하는 '특히'를 주시하여 핵심을 파고들어야 한다. 일할 때 왜(Why)라는 질문도 계속 반복되어야 하고 고객 입장에서 서보는 역지사지의 사고도 필요하다. 이런 훈련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책이나 신문을 꾸준히 읽는 것이다.

그런데 대중 읽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진짜 좋은 책이라면 최소 2번은 반복해 읽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메모할 필요도 있다. 한번 읽으면 정보가 되고 2번 읽으면 그내용이나 의 지식으로 자산이 된다. 같은 책을 두 번 읽으면 첫 번째 읽을 때 몰랐던 내용이 샘솟듯 튀어나온다. 중요 내용을 메모해 정리해 놓으면 후배나 동료에게 잘 전달하는 자산전달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

좋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자산을 남에게 잘 증폭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신문을 볼 때에도 단순한 정보(뉴스)를 넘어 우리 회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자산이 된다. 기사를 읽고도 가십으로 넘기면 시간 낭비가 되고 반대로 기사를 맥을 잘 짚어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기사에 대한 전달(링크 보내기)을 통해 조직 내 지식의 보고로 거듭날 수 있다.

회사에서 일을 잘하겠다면서 무슨 배짱으로 책도 읽지 않느냐는 말을 강연에서 들은 적이 있다. 진짜 정신이 번쩍 나는 말이다. 회사 직원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필요한 책을 사서 배달해 준다. 사무실에 두는 크지는 않지만 책방을 만들었다. 모두가 휴게실에 간식만 채워 직원 만족 경영을 한다지만 수준 낮은 것이다.

독서경영이라는 이유로 책을 읽고, 그

소감과 직장에서의 적용을 강의한 바 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책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분노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대입할 수 있었다. 분노 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을 구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책임은 잘 보이고 훈수도 잘 둔다. 아주 일반적인 이치다.

그런데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보다 냉철한 상황 파악을 위해 잠시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들어보는 것을 권한다.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고 상대보다 내 자신을 보다 많이 돌아보면 상황판단이 냉철해진다. 그곳에서 공감이 싹튼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당할 때에 일기를 쓰고 시를 짓고 음악을 들었으며, 씨름과 활쏘기라는 운동에도 몰두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용민 | 전 WTC SEOUL 대표이사



최영진의 풍경

눈꼴시네
객지생활도 서러운데.

사진가

태국·베트남, '포괄적전략동반자' 격상 합의

태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현지 매체 타이PBS 등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외교관계 격상에 합의했으며, 오는 6월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뽀뽀리 파히타누껀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4월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태국·베트남 양자협력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부이 타인 선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 두 외교장관은 교역·인적 교류 확대, 지속가능개발, 정치·외교·안보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태국은 베트남의 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이다. **방콕=연합뉴스**

2024년 4월 22일

장기 성장 예상되는 냉감 기능성 소재 시장

여름철 역대 최고 더위로 관심 확장되는 시장, 세계가 주목

지난해 여름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속출했을 때 주목받은 것이 냉감 소재다. 손 선풍기, 넥밴드 선풍기 등 이색 제품 수요도 많았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냉감 기능성 소재 시장은 장기 성장이 예상된다.

● **소재의 핵심은 '접촉 냉감'** = 냉감 소재는 체온을 조절하고 착용자나 사용자에게 시원한 효과를 주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기능성 소재다. 냉감 소재의 인공적인 피부에 닿는 면에서 땀을 빠르게 흡수해 인체의 열을 신속하게 증발시킨다. 원단 내부에서 체열을 신속하게 이동시켜 착용자가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원리다. 이 때문에 단순히 원단을 만질 때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열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접촉 냉감이 기능의 핵심이다.

● **최대 소비국 미국** =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의 '드라이핏'이나 아디다스의 '클라이마쿨'처럼 운동 시 착용자의 쾌적감을 높여주기 위한 소재들이 대표적인 기능성 소재다. 이런 소재는 땀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흡산속건 기능을 통해 운동 중에도 편안함을 제공한다. 냉감 소재의 개발은 열 전도성, 수분 흡수, 증발 속도 등의 기술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최근 냉감 소재는 스포츠웨어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 침구, 아동용품, 자동차 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빠르게 성장했다. 또한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적 소재에 대한 관심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냉감 소재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베리퍼이드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냉감 소재 시장은 19억4000만 달러로 평가됐으며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5.8%의 성장률로 30억5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업 마켓앤마켓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지역 냉감 소재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다. 2020년 미 냉감 소재 시장은 5억4680만 달러로 평가됐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7%씩 커져 7억66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인식과 스포츠 레저 활동의 증가는 스포츠 의류 부문에서 냉감 소재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



파리올림픽 성화 채화 4월 16일 그리스의 고대 올림피아 유적지에서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성화가 채화되고 있다. 이 성화는 11일 간의 봉송을 거쳐 26일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고대 올림피아 유적지(그리스)=AP/뉴시스】

인다. 최근에는 운동복뿐만 아니라 여름 정장이나 바지 등 일반 의류에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캡슐 및 특수 후처리 기술의 발달은 냉감 소재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 특수한 고열 환경에서 사용되는 보호복이나 헬멧 제조에도 활용되는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냉감 소재의 무한 확장** = 냉감 의류의 인기와 더불어 냉감 소재 시장은 무한 확장되고 있다. 우선 수면 중 체온이 낮아질 때 빠른 열 전달로 체온 상승을 방지해 숙면에 도움을 주는 냉감 침구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스마트 침대 제조기업 슬립넵버는 기능성 소재를 적용한 냉감 이불을 선보였다. 또한 침구 및 가정용 원단 기업 아메리칸텍스타일은 냉감 기능성 담요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에도 냉감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상변화물질(PCM)은 특정 온도대에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열을 방출해 냉감 효과를 제공한다. 신소재 개발기업 아웃라스트는 건물,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던 PCM을 직물에 적용해 자동차 시트커버나 유모차, 카시트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대만섬유연구소(ITRI) 또한 PCM을 마이크로캡슐 기술에 적용해 열 제어 기능이 있는 냉감 가죽을 개발 중이다. 미 과학진흥협회(AAAS)가 발간하는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착용자의 체온을 5도까지 낮춰주는 '겨울 원단' 개발 소식을 전하며 특수한

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장조사기업 마켓앤마켓은 "냉감 소재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건설 근로자의 작업복이나 군복 시장은 물론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열 관련 질병, 감염 그리고 만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의료산업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증** = 기능성 소재 시장에서 인증 획득은 경쟁우위 선점에 중요하다. 2022년 한국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냉감 소재 '포르페'는 '오코텍스(OEKO-TEX®) 1등급을 획득했다. 오코텍스는 유럽의 섬유품질 인증기관으로, 섬유제품이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미국의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제조기업 콜코어의 냉감 소재는 권위 있는 독일 섬유시험인증기관 호헨스타인으로부터 '혁신상'을 획득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직물섬유 식별법(TFPLA)으로 직물 제품의 라벨링과 광고를 관리 감독한다. 또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불연성 기준 및 화학물질 제한과 같은 일반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요구한다.

미시간 소재 대학 의류소재학과 교수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냉감 소재는 기능성 소재에 속하므로 제품의 사용 목적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인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인증기관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우리 기업 시사점** = 미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5.5도이며 설정 온도를 높이면 연간 6~8%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냉감 소재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냉감 소재 시장은 콜코어, 플라텍(미국), 알스트롬-몽쇼(핀란드), 난야플라 스틱, 텍스-레이(대만), 아사히카세이(일본) 등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기능성 소재는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피부 유해성에 대한 관리 책임이 뒤따른다. 2017년 아웃라스트의 냉감 소재로 만든 유아용 제품이 피부 발진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고 아직도 유해성 논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 냉감 소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소재기업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미국의 스포츠웨어 디자이너 A씨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스포츠웨어 부문에서 기능성 소재는 핵심이며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소재기업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냉감 소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도 있는 국제 기관으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 관련 인증을 획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디트로이트 무역관

친환경 정책으로 성장하는 중국 아크릴수지 시장

2019년 이후 매년 수요 확대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

중국 친환경 도료, 접착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유기화학 원료인 아크릴수지 수요도 커지고 있다. 중국 아크릴수지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한국은 중국의 1위 수입국이다. 올해도 친환경 도료, 첨단 접착제 시장의 성장에 따라 아크릴수지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아크릴수지는? = 아크릴산, 메타크릴산과 유도체를 중합해 형성된 유기화학 원료다. 아크릴수지는 원유에서 프로페인-프로필렌-아크릴산 등 여러 생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아크릴수지 함량 100%의 고체 제품과 수분을 함유한 액상 제품이 있다.

중국 화학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크릴수지의 주요 생산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이며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다. 2022년 한국의 중국 수출액은 6억31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세금 면제로 커지는 수요 = 중국 아크릴수지 시장은 2019년 이후 매년 성장하고 있다. 화학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도료, 접착제 등 산업 원료의 친환경 전환 수요가 높아지면서 친환경 원료이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함량이 가장 낮은 아크릴수지 소비량도 늘었다. 2019년 190만에서 2022년에는 233만으로 3년 만에 23%가 증가했다. 작년에는 친환경 도료와 첨단 접착제 생산이 늘면서 아크릴수지 소비량도 전년 대비 7% 상승한 250만에 이르렀다.

아크릴수지는 도료와 접착제의 활용 비중이 가장 높아 2022년 기준 36%와 31%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가 2021년 친환경

도료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첸잔산업연구원은 아크릴수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착제 산업은 2020년 정부가 발표한 '산업구조 조정 목록' 중 '장려 산업'으로 선정된 이후 생산량이 매년 늘고 있다. 화학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도료, 접착제 등 주요 산업 수요가 커지면서 지난해 아크릴수지 시장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418억 위안으로 추정됐다.

●전기차·디스플레이용 도료 등으로 용도 확대 = 도료는 아크릴수지의 최대 수요 산업이며 중국에서 친환경 도료 수요가 높아지면서 주요 원료인 아크릴수지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도료에 5~20%의 소비세를 징수했고 아크릴수지 도료 등 VOC 함량이 420g/L 이하 친환경 제품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 도료의 주원료인 아크릴수지 시장은 150억 위안에서 217억 위안까지 성장했다. 이후 정부는 2022년 5월 발표한 '녹색 발전 세금 혜택'을 통해 친환경 도료의 세금 면제 등 정책 지원을 확대했다. 화학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크릴수지로 만든 친환경 도료 시장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32억 위안이고 올해는 250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친환경 도료 분야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조사업체 공안망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용 아크릴수지 도료 수요는 50만인데 전체 아크릴수지 도료 시장의 60%에 달한다. 아크릴수지 도료는 자동차 표면, 바니시, 부품 등 도장 공정에 주로 사용되며 부식 방지, 광택 유지 및 퇴색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화학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자동차용 친환경 도료 산업의 아크릴수지 수요는 150억 위

현지 바이어와 전문가 인터뷰

KOTRA 무역관은 텐진시와 산둥성의 도료 제조 및 아크릴수지 원료 유통 기업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어떤 아크릴수지 도료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나?

"자동차 산업은 아크릴수지 도료의 가장 큰 활용 분야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특수 산업용 도료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고속열차, 해상 기계설비용 도료 제품의 매출도 상승세다."

- 도료 기업들은 실제로 한국산 아크릴수지를 많이 사용하나?

"우리는 자체 생산한 아크릴수지를 사용한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친환경 도료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한국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어떤 산업에서 아크릴수지로 제조한 접착제

를 주로 사용하나?

"일반 산업과 특수 산업으로 나뉜다. 일반 산업은 포장재, 건축자재, 산업용 테이프 등의 생산 기업들이고 특수 산업은 의료용 테이프, 전자용 테이프, 자동차 부품 접착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 중국산과 수입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 수입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크릴수지의 경화 속도, 경화 후 경도, 내구성 등을 비교할 때 중국산과 수입산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수입 제품은 VOC 등 유해 물질의 함량이 더 적고 수입 아크릴수지로 생산한 제품은 정부의 친환경 제품 표준에 일반적으로 부합한다. 아크릴수지가 보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소비자의 무해한 제품 수요 때문이다. 따라서 VOC 함량이 낮은 수입 브랜드 의존도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안으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크릴수지 접착제 시장도 2018년 이후 매년 커지고 있다. 산동성, 저장성, 산시성, 광둥성 등 접착제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VOC 함량이 높은 접착제의 생산을 규제하고 있다. 2020년 들어 아크릴수지 등으로 만든 접착제 산업이 정부의 '장려 산업'으로 선정되면서 생산기업과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첸잔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크릴수지 접착제는 유해 물질이 적고 사용 분야는 다양해 시장이 2019년의 93억 위안에서 2022년에는 120억 위안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산업 접착제용 아크릴수지의 연간 소비량은 2019년의 58만에서 2022년까지 72만으로 증가했다.

전기차 부품, OCA(Optical Clear

Adhesive) 테이프 등의 분야에서도 아크릴수지로 만든 첨단 접착제 수요가 늘고 있다. 아크릴수지 접착제는 상온에서 일반 접착제보다 접착력이 강한 특성이 있다. 최근 들어 전기차의 도어, 창문, 시트 등에도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사기관 공안망에 따르면 전기차용 접착제 시장은 2022년 15억 달러에서 지난해 19억 달러로 늘어나고 아크릴수지 수요도 20%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OCA 테이프는 터치스크린의 원자재로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접이식 휴대전화의 핵심 소재 중 하나다. 유리나 디스플레이 모듈을 붙이는 데 사용하고 전도성이 있으며 손가락이 만지는 전기 신호를 센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화학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크릴수지로 만든 OCA 테이프의 중국 시장 규모는 2022년 70억 위안에서 지난해 77억 위안으로 커졌다. OCA 테이프의 주요 원료인 아크릴수지 수요도 10% 늘었다.

화학산업연구원은 "전기차 부품, OCA 테이프 등 아크릴수지로 만든 첨단 접착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접착제용 아크릴수지 시장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129억 위안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이 전체의 39% 차지 = 중국은 아크릴수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22년 중국 아크릴수지 시장에서 독일 바스프를 비롯한 해외 브랜드의 규모는 약 200억 위안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화학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산 아크릴수지 중 80%가 경화도, 내구성 및 순도가 낮은 제품으로, 수성 아크릴수지를 비롯한 첨단 제품은 대부분 수입한다. 중국에서 유통 중인 해외 브랜드 제품 중 수입 제품이 70%, 140억 위안이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30%, 60억 위안이다.

한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1위 아크릴수지(HS코드 39069090)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아크릴수지 수입액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상승했지만 2022년에



법정에 선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15일 뉴욕의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전 "전에 없던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이것은 곧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톰미 대니얼스와 성 추문을 덮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500만 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AP/뉴시스】

벨라루스에서 높아지는 K-뷰티의 인기

직수출 늘려 가격 경쟁력 높여야
고품질 천연 유기농 제품 등 관심

벨라루스 뷰티 시장은 그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제재 등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안정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3.9%의 성장률로 시장 규모가 7억2991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벨라루스에서 K-뷰티가 약진하고 있다.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에 관심** = 벨라루스 화장품 시장은 현지 기업들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뷰티 제품을 생산하며 유럽, 아시아, 북미의 유명 브랜드들도 진출해 있다. 벨라루스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모두 선호한다. 로레알, 메이블린, 맥스팩터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현지 업체들도 주목받고 있다. 벨라루스 인기 브랜드로는 '벨리타 바이텍스' 등이 있다.

화장품 외에도 보습제, 클렌저, 노화 방지 크림 같은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스킨케어 루틴에 대한 인식 제고로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 제품에 기꺼이 투자한다.

꾸준한 시장 성장세 속에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벨라루스 젊은 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주로 접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

●**활기 띠는 전자상거래 시장** = 벨라루스에서는 소매점, 백화점, 뷰티 전문점, 약국,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뷰티 제품이 유통되며 슈퍼마켓과 대형 마트도 뷰티 섹션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 현지 소매업체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다양한 선호도와 개별 예산에 맞는 제품들을 제공하면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벨라루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미용제품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온라인 판매가 전체 판매의 13.1%, 2025년에는 16.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벨라루스에서 영업 중인 오프라인 전문



폭락하는 엔화 4월 16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한 남성이 외환 시세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1990년 6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154엔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도쿄=AFP/연합뉴스】

매장 가운데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로컬 브랜드로는 벨리타바이텍스, 밀라, 오스트로프키스토티, 크라프트 등이 있다. 벨리타바이텍스는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서 증거가 제품 위주로 생산한다. 나머지 업체들은 생활잡화 매장인데 화장품도 판매하며 벨리타와 마찬가지로 서민이 주 고객이다. 반면 크라프트는 편집매장으로, 위탁판매 형식으로 영업 중인데 럭셔리 브랜드 중심으로 입점해 있다.

외국계 브랜드 매장 가운데 인기 있는 곳은 이브로세, 룩시팡(프랑스), 미샤, K-뷰티(한국), 미니소(중국), 골든애플(러시아) 등이다. 이들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세련된 피부 관리 관련 제품을 선보여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

●**증가하는 한국 제품 직수입** = 러-우 사태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벨라루스 통계청은 세부적인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장품 수입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팬데믹 침체를 겪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 화장품의 벨라루스 직접 수출액은 490만 달러로 2019

년의 2.6배에 달했다.

벨라루스는 뷰티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시장의 절대 강국은 러시아다. 전체 화장품 수입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헤어케어 제품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한다.

화장품(HS코드 3304)의 2021년 수입액은 8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로부터 발생했다. 이외에 주요 수입국은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이며 한국은 3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한류 열풍에 따른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벨라루스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헤어케어 제품군의 주요 상품인 샴푸의 경우 2021년 수입이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82%), 이탈리아(3%), 튀르키예(2%)다. 한국산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일부 제품이 관심을 받으면서 매장 진열대에 오르고 있다.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 온라인 판매 중인 현지 바이어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에서도 한국산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고 잘 팔리는 제품군은 마스

크팩과 보습 제품"이라며 "벨라루스 특성상 한국의 트렌드인 미백 제품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반면 미용사나 미용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전문 미용 제품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기업 시사점** = 벨라루스 소비자들이 외모에 신경 쓰면서 자신의 피부에 맞는 좋은 품질의 스킨케어와 화장품 수요가 커지고 있다. 고품질의 천연 유기농 제품뿐만 아니라 특정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안티에이징 솔루션 제품에 관심이 많다.

벨라루스 뷰티 시장에서는 제품 판매 외에도 뷰티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용실과 스파는 헤어컷, 스타일링, 마사지, 매니큐어, 페디큐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뷰티 서비스 관련 제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벨라루스에서도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플루언서는 뷰티 트렌드와 소비자 선호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힌트를 얻거나 제품 추천, 튜토리얼을 찾으면서 뷰티 브랜드들은 디지털 마케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민스크 무역관

는 13.7% 줄었다. 2022년 한국산 수입액은 6억3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지만 이는 전체 감소 폭인 13.7%보다 낮다. 물량 기준으로는 0.6% 하락한 30만5800t이었고 전체 수입량의 39%를 차지했다.

중국의 아크릴수지 수입 기업은 동부 연해 지역에 다수 분포한다. 상하이시, 푸젠성, 광둥성은 수입 상위 3개 지역이다. 특히 지난해 푸젠성의 한국산 수입량은 전년

대비 30% 늘었다. 차차차에 따르면 아크릴수지를 생산 및 수입, 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산둥성, 상하이에 각각 3개 이상이며 랴오닝성, 안휘성, 후난성에도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더욱 성장하는 시장** = 중국 정부가 도로, 접착제 등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면서 해당 산업의 아크릴수지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고(高) VOC 제품 소비세 징수(2016년), 고 VOC

제품 생산 규제(2018년), 친환경 제품 생산 장려(2020년) 등으로 아크릴수지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이런 점에서 국내 아크릴수지 기업은 중국 진출 시 관련 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용 아크릴수지 시장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전기차는 아크릴수지로 만든 도로로 표면을 보호하고 광택을 유지한다. 전기차의 경량화 추세에 따라 금속 부품 대신 아크릴수지 접착제를 사용이 많이

늘고 있다. 또한 차량 인테리어도 아크릴수지로 만든 도로와 접착제를 사용해 유해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1~5월 비야디(BYD), 에이온, 리상 등의 중국 내 전기차의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14%, 114%, 145%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산업용 아크릴수지 시장도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스크 무역관

‘그림자 전쟁’에서 ‘열전’으로 바뀐 이-이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 촉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와중에 전쟁의 불길은 이스라엘과 이란으로도 옮겨 붙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전쟁 불사를 외치며 으르렁대고 있을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다른 듯 같은 전쟁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얼핏 보기에 다른 전쟁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연결된 전쟁이다. 여기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라는 무장정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헤즈볼라를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하마스를 지지한 다면서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왔다.

이스라엘군은 올 4월 1일 낮 12시 17분께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이 공격을 이스라엘이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헤즈볼라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 인해 이곳에 있던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를 비롯해 여러 명이 숨졌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80세 추정)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레자헤디는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란의 준군사 작전을 관리해왔다.

이로부터 12일이 지난 4월 13일 밤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300발이 넘게 발사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자국군이 이란의 드론, 미사일을 99% 요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쟁의 불길은 이란과 이스라엘 직접 전쟁으로 옮겨 붙기 직전 상황까지 왔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쟁을 말리고 있지만,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표

명하고 있다.

서방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동안 벌여온 ‘그림자 전쟁’이 ‘열전’으로 치닫해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후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친(親)이란 대리세력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는 것이 서방의 판단이다. 대리세력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및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이다. 이란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과 전면전 및 미국의 개입을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두 나라는 어쩌다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나 = 많은 인간관계가 그렇듯, 이란과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1979년 2월 ‘이란 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사이가 좋았다. 이란 팔라비 왕조는 이슬람 국가로서는 터키에 이어 2번째로, 중동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테헤란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설치됐다. 이는 이란 국민 상당수가 무슬림이긴 했지만, 당시 이란이 아랍국가도 아니고 팔라비 2세가 세속화 정책을 추진 중이었고, 수니파가 다수인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달리 시아파였기 때문이었다.

많은 중동국가들과 사이가 나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국가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호관계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180도로 바뀌게 된다. 정권을 잡은 호메이니는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과 단교했다. 이후 이란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시리아 아사드 정권,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원한다. 즉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 사이의 국경 분쟁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란-이스라엘의 대리전이 지속돼온 것이다.

최근의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확산 위

기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두 나라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1988년의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의 일이다. 개회식 입장 때 한글 국기에 따라 이란 다음에 이스라엘이 입장해야 하는데, 두 나라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재해서 둘을 역지로 떨어뜨려 입장하게 했다. 서울 올림픽 때는 이란 다음에 이집트를,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이탈리아를 끼워 넣었다. (출처: 나무위키)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걸프국가들 =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그동안 이들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추구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국가들이 이제는 어느 편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경쟁 구도 속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중립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을 살해하고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대규모 공습하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란은 중동 내 최대 대 라이벌이며 미국은 중요한 안보 협력국이다. 사우디와 UAE는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과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가자전쟁에 있어선 이스라엘을 거세게 비판해왔다. 이들 국가는 가자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처럼 자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을 경계해왔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확대돼 미국이 더 깊이 개입하게 된다면, 걸프국가들은 ‘냉혹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군이 자국 내 기지에서 이란과 그 대리세력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 아니면 이란을 달래면서 상황을 방관할지의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사우디의 속내는 특히 복잡하다. 사우디는 미국의 확고한 안보 약속과 핵 프로그램 지원을 대가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이는 가자전쟁으로 중단됐지만, 사우디는 여전히 미국의 방위 보장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전쟁으로 자신의 야심 찬 계획이 지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우디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석유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 체질을 다변화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촉각 = 전쟁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핵심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알리 레자 탕시리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은 4월 9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과 관련,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기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 당시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포르투갈 국적의 이 배는 에얄 오페르라는 시온주의 거물이 소유한 기업 ‘조디액’이 운영한다”며 이스라엘과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바닷길이다. 이곳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를 수출한다.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어 ‘원유의 동맥’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원유 수출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고, 이 수로를 지나는 미국과 그 우방의 상선을 억류·공격해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의 유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란이 실제 해협 봉쇄를 단행하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맞대응 수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이 향후 추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이 실제 해협 봉쇄를 단행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해협 봉쇄로 이란 자신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의 대중국 석유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일 원유량(1500만 배럴) 중 100만 배럴 이상이 이란산이었다며 “이란에도 해협 폐쇄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신종합



반이스라엘 시위 4월 15일 이란 테헤란의 팔레스타인 광장 건물벽에 걸린 반이스라엘 현수막 앞에서 시위대가 대형 이란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분명하고 강력한” 재보복을 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전했으며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헤란=AP/뉴스시스】

WB “가난한 75개국과 선진국 소득격차 더 벌어져”

글로벌 ‘부익부 빈익빈’ 심화

21세기 들어 ‘역사적인 역행’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75개국 중 절반 국가에서 선진국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세계은행(WB)이 분석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에 75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 중 절반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한 속도가 선진국들보다 느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역사적인 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평가했다.

IDA 국가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75개 국가를 칭하는데 인류의 약 4분의 1인 19억 명이 IDA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 3곳 중 1곳은 평균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보다 가난해졌다고 평가했다.

극빈율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보다 8배 이상 높았고, IDA 국가 국민 4명 중 1명은 하루 2.15달러(약 3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다. 굶주림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의 90%가 IDA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IDA 국가 절반이 채무 위기에 처했거나 그럴 위험이 크지만, 세계은행과 다른 다자 개발은행을 제외하면 이들 국가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가 IDA 국가들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IDA 국가의 안녕은 세계 번영의 장기 전망에 항상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세계 경제 강국 3곳인 중국, 인도, 한국 모두 한때 IDA 채무국이었다. 3국 모두 극빈율을 줄이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번성했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면 오늘의 IDA 국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들이 기회와 위기에 직면했다고 봤다. 세계 다른 국가들이 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IDA 국가들은 젊은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IDA 국가들은 세계 주식, 구리, 금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고 일부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투자가 부족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경제 손실을 입고 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장기 침체 위험을 낮추려면 국제사회의 상당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에 가려진 불평등·부채... 빈국들 세계화 혜택도 사라져 = 이와는 별도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글로벌 경제가 잠정하는 부채와 불평등을 가리고 있고 어려운 나라들은 사정이 더 나빠지고



너무 더워요 4월 15일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출근길 시민들이 지나치게 강렬한 햇빛을 손으로 가리고 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일부 지역의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자, 일부 정부 기관은 출근 시간을 앞당겨 조기 근무 형태로 조정했다. [케손시티=AP/뉴시스]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경제가 경기 하강을 피해 연착륙으로 향하고 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전쟁과 경제적 민족주의의 인해 많은 국가의 사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불행하게도 세상은 더 위험해지고, 분열되고, 빛을 지고,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주요국 경제는 낙관적으로 비친다. 미국 경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강한 회복력을 보인다. 영국은 지난해 말 하강세에서 돌아서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독일 산업 부문도 반등할 조짐이다. 많은 부채를 가진 중국 내에서도 이번 설 연휴 동안 관광객들은 대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고, 공장들도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인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춘계 회의에서 주요 경제국에 대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해 말에 내놓은 2.7% 성장 예측보다 높다.

그러나 금리가 더 오르지 않고 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고, 세계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처럼 정치적,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에 휩싸여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또 각국이 지정학적 블록으로 뭉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적 격변에 맞서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소수의 부유한 층자들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전반적인 성장 둔화 쪽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전 5년 동안 글로벌 성장률은 평균 3.4%로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IMF

는 이제 향후 5년간 경기 확장이 지난 30여년 중 가장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온갖 무기가 동원된 전쟁과 함께 강화되는 무역 전쟁 속에서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은 이전의 낮은 무역 장벽과 개발도상국의 신흥 중산층을 겨냥해 투자 결정을 하던 시대의 종말에 직면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은 기후 변화 충격, 정부 지출을 압박하는 막대한 부채, 식량 가격의 급등 등으로 타격을 입었다. 덩달아 대이주 행렬을 초래하고 부유한 국가의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부국과 빈국 간 격차가 좁아지는 경제 수렴 시대를 앞당겨 종식했고, 그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세계화의 이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공급망의 확산

으로 혜택을 받던 가난한 국가에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무역 전문가 에스워 프라사드는 “지정학적 균열의 심화로 무역과 금융 흐름이 분열되고 주요 경제국들이 내부로 향하면서, 저개발 빈곤 국가는 세계화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7억1200만 명이 하루 2.15달러(약 30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이었다. 2019년보다 2300만 명이 더 많다.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혁명이 자산 거품을 키우고 결국 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다른 포퓰리스트가 유럽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미래는 더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미 의원, 루이비통에 페루 원주민 착취의혹 비판

페루 출신으로는 최초로 미국 연방 의회에 진출한 한 하원 의원이 럭셔리 브랜드의 페루 원주민 착취 의혹을 문제 삼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버트 가르시아(46) 연방 하원 의원(민주당·전 캘리포니아 롱비치 시장)은 지난 3월 명품그룹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 측에 페루 원주민 노동자 착취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LVMH 그룹에 속한 브랜드인 로로피아나의 캐시미어 스웨터 제작 과정과 관련돼 있다. 앞서 블룸버그는 로로피아나가 원주민들에게 비쿠냐 모피 원재료 가격을 수년간 지속해서 낮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쿠냐는 남미 안데스산맥에서 주로 서

식하는 낙타과 동물이다. 그 털은 가볍고 따뜻한 데다 고급스러운 윤기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잉카에서는 왕족이 입는 신성한 옷감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로로피아나는 비쿠냐 털을 원재료로 만든 스웨터와 니트 등을 3000달러에 팔기도 하는데, 이는 10년 전의 30%까지 떨어진 원재료 가격과 비교하면 폭리와 다름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페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연방 하원에 입성한 가르시아 의원은 “비쿠냐를 통한 마을 수익은 최대 80%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구매자들은 자신이 사는 물건이 착취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솔츠 독일 총리의 방중, 중국과 독일의 '동상이몽'

중, 전기차 등 EU 제재 허물기
독, 중국시장 재공략 경제 희생

독일 올라프 솔츠 총리가 1년 반 만에 중국을 방문해 중국 시장 재공략에 나선 가운데, 중국은 이참에 독일을 '악한 고리'로 유럽연합(EU)의 중국산 무더기 제재 전열에 균열을 내겠다는 심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화권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사흘간 일정으로 4월 14일 중국을 방문한 솔츠 총리는 충칭 방문을 시작으로 상하이로 거쳐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와 회담했다. 솔츠 총리는 2022년 11월 중국을 하루 일정으로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눈여겨볼 대목은 쉘 외츠데미어 농업 장관과 폴커 비싱 교통장관, 슈테피 램케 환경장관 이외에 독일 자동차기업 메르세데스-벤츠·BMW와 화학기업 바스프(BASF), 기술기업 지멘스 등의 경영자 등이 대거 동행했다는 점이다. 첫날 충칭에서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 보쉬와 중국 칭링 모터스의 수소 연료전지 합작 공장을 방문해 이번 방중이 경제적인 목적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중국 외교부는 솔츠 총리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사가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규모 독일 기업 대표단이 동행한 점에 비춰볼 때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짚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 이후 어려움을 겪는 독일로선 중국 시장 재공략을 통한 경제 희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때문인지 독일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중국 투자가 급감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대중국 투자를 크게 늘렸다. 실제 독일경제연구소(WI)가 중앙은행인 분데스뱅크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독일의 지난해 대중국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19억 유로(약 17조460억 원)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2년 1700억 유로(약 243조 원)였던 독일의 해외투자 규모가 지난해 1160억 유로(약 166조2000억 원)로 급감한 가운데서도 이뤄진 '중국 사랑'이었다.

그런데도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작년 독일과 중국 간 교역액은 2068억 달러(약 286조 원)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중국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독일산 제조업 제품의 수입을 줄인 탓에 독일은 타격을 입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독일은 다시 중국에서 '답'을 찾는 모양새다. 독일은 작년까지 무려 8년간 독일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과 '공존·공생' 의지를 다지고 있어 보인다. 상하이 푸단대의 덩춘 유럽학 교수는 "독일은 중국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경제·무역 협력을 더 강화해야 서로 살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선진국인 독일로부터 첨단 제조업 기술 전수를 염두에 뒀고, 독일은 중국의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윈-윈'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선 솔츠 총리의 이번 방중이 양국 협력을 통한 직접적 경제 이득 외에도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 싱가포르국립대의 쟁자잉 정치학과 교수는 연합초보에 "중국은 솔츠 총리 방중 기간에 독일 자본의 투자와 기술 이전을 유도하면서 중국과 EU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U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 터빈은 물론 전기차 등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면서 고율

의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무역 조사에 나선 데 대해 독일을 고리로 EU의 제재 전열에 균열을 내려 한다는 것이다.

사실 EU는 중국이 수십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쥐 자국의 CATL(닝더스다이·寧德時代)과 비야디를 세계 점유율 1, 2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2009년부터 전기차 구매세 인하 조치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본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는 올해 11월까지 이어진다.

이외에 태양광 패널, 철강 등을 포함해 중국산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EU는 아울러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제품은 물론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미국의 디리스크(de-risking) 정책에 가세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도 '우회로' 역할을 해온 EU가 중국에 반기를 들고 나선 데 대해 중국은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어 보인다.

지난 7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을 돌며 반보조금 담판을 벌였다. 특히 중국은 독일을 '악한 고리'로 전기차 등 중국산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와 제재를 악화하는 한편 EU의 대중국 디리스크 정책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콩 명보는 "지난 2월 독일 측이 충칭에 모두 84개 외자 기업을 설립했으며 주로 제조·건설·과학연구·기술 서비스·금융 분야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당국이 일정 수준의 혜택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솔츠 총리가 방중 첫날 충칭을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중국 두리안 시장 놓고
베트남-태국 1위 경쟁

두리안 최대 소비처인 중국 시장을 두고 태국과 베트남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지 매체 네이션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2월 중국에 두리안 3만2750t을 공급해 기존 1위 수출국 태국을 제쳤다. 이는 중국 수입 물량의 57%를 차지하는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 32%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의 태국산 두리안 수입 물량은 전체 약 33%에 해당하는 1만 9000t 규모로 작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두리안은 냄새는 고약하지만 달콤한 맛과 특이한 식감, 풍부한 영양으로 '과일의 제왕'으로 불린다. 두리안은 최근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두리안 수요 90% 이상을 차지한다.

두리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 중국 시장 수요는 1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중국 두리안 시장은 향후 현재 수준의 15배인 1500만t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태국산 두리안은 90%를 웃도는 점유율로 독보적 지위였으나, 최근 베트남산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운송이 편리하고, 일 년 내내 두리안을 재배할 수 있는 기후 조건도 가졌다. 베트남산 두리안은 태국산보다 약 20% 저렴해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두리안은 태국 최대 수출품 중 하나로, 대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소비된다. 2021년에는 한화 6조9000억 원 규모를 수출, 두리안이 수출 1위 품목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지난해 수출은 1200억 바(4조6000억 원) 규모였다. 작년 두리안 출하량 90만 t 중 60만t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됐다.

최근 베트남산 두리안의 약진에 태국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에 두리안 생과만 수출할 수 있지만, 태국은 냉동·가공 제품도 수출할 수 있다. 태국 당국은 베트남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있는 중국이 베트남에 냉동 두리안 수출을 허용한다면 베트남의 수출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태국은 베트남의 강력한 도전에 맞서 중국 시장을 사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은 최고급 두리안만 공급하기 위해 저품질 상품 수출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농업조합부에 덜 익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두리안을 수확해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품 표준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과육 건조 중량 비율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가공·포장 업체들은 관련 인증을 사용해야 한다.

태국 정부는 두리안 연간 수출액을 1조 바(38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콕-연합뉴스



중국에 간 독일 총리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가 4월 14일 중국 충칭(重慶)의 '보쉬 수소 파워트레인' 충칭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그는 15일 상하이에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더욱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덤핑수출과 과잉생산에 대해 경고했다. 【충칭(중국)=AP/뉴시스】

51년 리관유 가문 시대 끝... 싱가포르 총리 교체

20년 집권 리셴룽 5월 퇴임
50대 로런스 윈, 취임 예정

싱가포르 총리 자리를 50년 넘게 지킨 '리관유 가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싱가포르 국부로 불리는 고(故) 리관유 초대 총리는 1959년 6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31년간 장기집권했다. 2대 고축통 총리에게 2004년 8월 자리를 넘겨받은 리셴룽(72) 총리는 5월 중약 20년 만에 물러난다.

리관유·리셴룽 부자가 총리 자리에 있던 기간이 약 51년에 달할 정도로 싱가포르 현대사에서 이 가문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리셴룽 총리는 고축통 총리 내각에서도 부총리 등 고위직을 지내며 국정 참여했다.

리 총리는 70세가 되는 2022년 전에는 물러나겠다고 과거 여러 차례 밝혔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퇴임을 미뤘다. 그는 지난해 11월 70세 생일 전에 물러나려던 계획은 지키지 못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인민행동당(PAP)의 '70번째 생일' 전에는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PAP의 70번째 생일은 올해 11월 21일 창당 70주년을 뜻한다. 이 약속대로 그는 다음 달 15일 후계자로 이미 낙점된 로런스 윈(51) 부총리에게 총리직을 넘기겠다고 4월 15일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줄곧 현 여당인 PAP가 집권하고 있다. 총리는 사실상 PAP 지도부가 결정한다. 리 총리는 2018

년 PAP내 '4세대' 정치인을 대거 내각에 배치하고 후계자 선발에 나섰다. 이 중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헝스위킷 부총리가 2021년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후계 구도에서 이탈했다. 이후 윈 당시 재무장관, 윈 찬춘싱 교육부장관, 옹예쿵 보건부장관, 데스먼드리 국가개발부장관이 후보로 남았고, 윈이 최종 승자가 됐다.

윈 부총리는 PAP를 이끄는 젊은 정치 지도자들인 이른바 '4세대(4G) 그룹' 정치인 중 한 명이다.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와 하버드대에서 각각 경제학,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싱가포르로 돌아와 산업통상부, 재무부, 보건부 등에서 일했고, 2005년 리 총리 수석보좌관으로 인연을 맺었다.

그는 공식 생활을 정리하고 2011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문화·공동체·청년부 장관, 국가개발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을 거쳐 2021년 4월 재무부 장관을 맡았다. 4대 총리로 낙점된 후에는 부총리를 겸직하며 '대권수업'을 받아왔다.

그는 SNS를 통해 "겸손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며 "내 모든 것을 바쳐 일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윈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맡은 공동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무장관으로서도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의회와 국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왼쪽)와 로런스 윈 차기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을 상대로 소통 능력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때 후계 구도를 놓고 리관유 가문 '3대 세습설'이 나뉘기도 했다. 선친 유언 등을 둘러싸고 리셴룽 총리의 남동생 리셴양, 여동생인 리웨이링은 리 총리가 '왕조 정치'를 꿈꾸며 아들 리홍이에게 권좌를 넘겨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형제간 갈등 속에 일단 차기 총리는 두 번째로 비(非) 리관유 가문 출신으로 확정됐다. 윈 차기 총리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싱가포르 경제를 성장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싱가포르 선거에서는 여당 승리가 당연

시되지만, 2020년 총선에서 PAP가 93석 중 83석을 얻자 사실상 패배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윈 차기 총리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지도 관건이다.

여권은 최근 교통부장관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는 등 부패 스캔들로도 비판받았다. 총자이안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윈은 아직 그의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총리가 될지 가능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는 판을 흔들지 않는 지도자가 환영받았을 수 있으나 오늘날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서울·연합뉴스

EU, 에너지·전력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순항

지난해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도(ETS)가 적용되는 에너지 집약 산업 및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해 2030년 감축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기후변화총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EU ETS가 적용되는 에너지 집약 산업과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보다 15.5% 줄었다. 이는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연도인 2005년 대비 47% 감축에 해당하며 이 부문의 2030년 목표치인 2005년 대비 62% 감축 달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의 대부분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 기후조건에 따른 수력 및 원자력 비중 확대 등 전력 부문의 배출량 감축분에 의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집약 산업이 효율성 향상, 생산 산출량 감소 등에 따라 7%의 감축을 달성했지만 항공운송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수요 증가로 오히려 1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작년의 기록적인 배출량 감소가 석탄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대외 위

기 및 주기적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감축 수준이 계속 유지될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 환경청은

"경제 활성화에도 배출량 감소 경향은 계속 유지돼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EU의 '노력분담규정'(ESR)에 따른 각 회원국의 농업, 운송, 건물 난방 등의 부문은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SR에 따른 2030년 배출량 목표는 40%이지만 지난해 감축률은 34%에 그쳤다. 이용석 기자



오페라하우스의 근조 4월 15일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조명으로 검은 리본 모양이 장식돼 있다. 이날 등장한 검은 리본 모양 장식은 이틀 전 시드니 교외 본다이 정크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물지마 흥기 난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3일 이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 사건으로 쇼핑객 6명이 숨졌다. 【시드니=AP/연합뉴스】

데스크의 창



무역업무 디지털화에 나서는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는 여름까지 무역 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중점 과제를 명시한 정부 기본계획(공정표)을 수립하기로 하고 수출입과 결제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기업을 통관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글로벌 무역은 디지털화가 늦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화주와 거래 상대뿐만 아니라 창고업체, 운송업체, 통관업체 등 불특정 다수가 관여해 구조가 복잡하며 정보 교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역업체는 관습적으로 실물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원산지증명서(C/O), 선하증권(B/L) 등 수많은 서류를 종이나 메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회사마다 양식이 달라 절차가 번거롭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업무 솔루션 기업 스탠데이지가 대기업 무역업무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역업무의 실무적인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중요한 원본 서류가 많아 페이퍼리스가 진행되지 않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가 37.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류회사와의 업무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역업체의 이 같은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표에 향후 5년간 정부 각 부처가 처리해야 할 과제와 정책을 담을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종이로 작성되는 선하증권을 디지털화된 증권으로 바꾸고 이를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무역업체, 해운기업,

금융기관 등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최대 5000만 엔까지 보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페이퍼리스 무역 강화를 위해 국제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29회 아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AEM-METI)에서 공정표 책정 방침을 포함한 '일-아세안 경제 공동 창조 비전'을 공표하고 '미래 디자인·액션 플랜'에 합의한 것입니다.

비전에는 무역절차의 디지털화로 회복력 있고 효율성 높은 공급망을 구축해 양측의 제도적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공정표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국 기업 간 데이터 연계를 명시했는데 연계가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일본 정부가 각국 세관의 제도 준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실제 일본의 무역정보 플랫폼 운영 기업 트레이드왈츠는 태국, 싱가포르의 무역관리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선하증권, 신용장, 송장, 보험증권 등 주요 문서를 전자화함으로써 프로세스 간소화와 서류 분실 등 리스크 저감을 지원합니다. 현재 트레이드왈츠는 아세안 회원국의 절반인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의 무역 플랫폼 사업자와 시스템 연계와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일-아세안 무역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중 무역 플랫폼 이용 확대를 촉진하는 '무역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절차 디지털화 추진 사업'에 5억9000만 엔을 새로 편성하는 등 무역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아세안 경제산업 협력위원회(AMEICC)가 추정하는 양측의 무역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연간 166억 달러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KOTRA 오사카 무역관은 "일본 정부가 무역업무 디지털화 기업에게 통관 우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본과 거래 중인 우리 기업들은 관련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 “중국경제 둔화 지속”... 올 세계 경제성장률 3.2%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근거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4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는 IMF의 지난 1월 전망보다 0.1%p, 작년 10월 전망보다 0.3%p 높은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작년 성장률 추정치인 3.2%와 같으며 IMF는 2025년에도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비관적인 예측들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때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IMF는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인 3.8%와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대출 비용 증가와 재정 지원 중단 ▷코로나19의 장기영향 ▷우크라이나 전쟁 ▷생산성 증가세 둔화 ▷지정학적 분열 확대 등이 부담 요

인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진국 경제는 성장률이 2023년 1.6%에서 2024년 1.7%, 2025년 1.8%로 증가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올해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 전망보다 0.2%p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기록한 것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IMF는 작년 10월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가, 1월에 0.6%p 상향했는데 이번에 다시 0.6%p 올려잡은 것이다.

유로존은 2023년 0.4%에서 2024년 0.8%, 2025년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지난 1월 전망과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0.1%p, 내년 성장률은 0.2%p 각각 낮았다. 특히 소비자심리가 약한 독일 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0.3%p 하향했다.

일본 경제는 관광객 급증 등 일시적 부양 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2023년 1.9%에서 2024년 0.9%로 낮아지고 2025년에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올해와 내년 모두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1월 전망과 같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올해 4.2%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전망보다 0.1%p 높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4.2%로, 종전 그대로 유지됐다.

IMF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가 누그러지는 가운데 중동과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증가세를 예상했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

률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2023년 5.2%, 2024년 4.6%, 2025년 4.1%로 계속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당분간 중국 내수는 침체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자 회견에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측을 웃도는 5.3%를 기록한 점과 관련, "성장률 수정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며 상향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부문 경기 침체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경제는 탄탄한 내수와 노동력 증가 덕분에 올해 6.8%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1월 전망보다 0.3%p 상승한 수치다.

세계 인플레이션은 2023년 연평균 6.8%에서 2024년 5.9%, 2025년 4.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월 전망과 비교하면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각각 0.1%p 증가했다. IMF는 "다소 걱정스럽게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한 진전이 올해 초 이후 약간 정체됐다. 일시적인 지연일 수 있지만 경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공급망 차질 완화, 중국의 수출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면서 에너지 가격이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최근 상승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을 더 제한하면 상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교역량은 올해 3.0%, 내년 3.3% 증가할 것으로 봤다. 작년 교역 성장률인 0.3%보다 높지만, 2000~2019년 연평균 4.9%보다는 여전히 낮다. 1월 전망과 비교하면 IMF는 올해와 내년 교역 성장률 모두 0.3%p 하향했다. 서울=연합뉴스



촛불 켜는 소녀 4월 16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한 소녀가 정부의 계획 정전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상점에 촛불을 밝히고 있다. 에콰도르는 장기간의 가뭄과 고온으로 주요 수력발전소에 물이 부족해지면서 계획 정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웃 콜롬비아도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 【키토=AP/뉴스시스】



김석문의 베트남 통신 310

경기회복 신호들

베트남은 올해 1분기 수출은 15.5% 증가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13.4% 늘어났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72% 증가로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GDP는 5.66% 성장해 올해 목표치에 근접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2024년 초기 경제는 성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4월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베트남 경제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6.0%와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통계청(GSO)은 1분기에 전국적으로 설립된 신규 기업 수가 3만6224개에 달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영업 재개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만9848개에 이른다.

이러한 경제의 활성화는 글로벌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수출의 회복이 근간이다. 통계청(GSO)에 따르면 2024년 3월의 카메라, 캠코더 및 부품 수출은 7억 2천만 달러 이상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실적이다.

많은 의류 업체들은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15% 증가했으며 3분

기까지 작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한 주문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는 9.62% 증가한 95억3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베트남 수산물수출 및 생산자협회(VASEP)에 따르면, 참치 통조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여 1억9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참치 제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개 시장에 비해 대폭 늘어난 80개 이상의 시장에 출하됐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따르면 호치민시 A등급 및 B등급 사무실 부문에서 1분기 공실률이 프리미엄 부문 16.7%, 중저가 부문 9%로 전분기 대비 1.9%p, 2.3%p 하락했으며 대규모 임대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관광업 회복으로 2023년 하노이와 호치민시 호텔 요금이 두 자릿수 상승했다고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빌스(Savills)의 최근 보고서가 밝혔다. 공실률은 40%로 전년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베트남 저가항공 비엠티(Vietjet)은 2023년 항공운송매출이 전년 대비 62% 증가한 53조7000억 동(21억6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보조 및 화물 매출은 거의 21조 동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증해 전체 항공운송매출의 39%

를 차지했다.

SeABank 은행은 2024년 1분기 연결 세전이익이 1조5000억 동(6000만 달러)을 넘어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의 41% 증가한 통합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강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VSDC)에 따르면 2024년 3월에 16만3000개 이상의 새로운 주식 거래 계좌가 생성되었으며 이는 1월에 비해 5만 개 이상의 계좌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계좌가 생성된 달로 기록됐다.

베트남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은행 모기지 증가율은 1%에 불과했으며, 이는 지난 5년 중 가장 낮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본 소스가 부족하며 아직도 수요자가 구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으로 올해도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기 위한 초안에 대해 음료 산업계는 경쟁 능력을 손상시켜 전체 공급망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구매력과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매출과 이익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형 유통기업 마산(Masan) 그룹이 2억50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식료품 체인 박호아산(Bach Hoa Xanh)은 중국에 본사를 둔 씨디에치 투자회사(CDH Investment)에 5%의 지분을 매각했다. 투자에 의한 자금의 유입은 시장 확

대에 대비한 자본 확충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의 식음료(F&B) 시장은 중산층의 증가로 확장 및 시장 진입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탄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F&B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11.47% 증가한 590조 동(236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2023년 베트남 음식점과 카페 수는 31만7299개소로 1.26% 소폭 증가했다. 그런데 온라인 음식 배달은 2023년 52조4000억 동 규모로, 이는 전년 수준보다 20.18% 증가하고 전염병 이전 기간보다 3.5배 증가한 수치다.

베트남의 중산층은 현재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인당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은 5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회복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소비계층 중에서 가장 먼저 중산층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가 욕구를 인지하고 수요를 느끼는 단계에서 신상품에 대한 관심은 특히 구매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석문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기획위원장
kswkso@hanmail.net

바이든도 관세로 중국 때리기... 통상갈등 격화 예고

철강제품 관세 3배 인상 지시... 대선 앞두고 보호무역 경쟁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4월 17일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에 위치한 주요 경합주에서 노동자의 표심이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적인 조치 발표나 공약 경쟁이 가열되면서 미중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의 미국철강노조(USW) 본부를 찾아 “중국 철강회사는 경쟁하는(competing) 것이 아니라 속이고(cheating)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USTR은 현재 트럼프 정부 당시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된 대(對)중국 고율 관세를 유지할지 여부 등에 대한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첫 단계는 정례 검토가 종료되는 것인데 조만간 그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요청과 일치하는 추가적인 대응 조치 및 관세 효율성 강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 수준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5%로 오르게 된다. 나아가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검토에 따라 전

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지난 1월 보도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그 효과 등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 카드도 대선 앞두고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 표심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가운데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이 러스트 벨트에 속해 있다. 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는 과거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였으며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초강경 대중국 통상 정책을 공약하면서 노심 공략에 나선 상태다. 이른바 10% 보편 관세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재집권시 대중국 관세를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아마도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은 지금 미국에 보스나 마찬가지”라면서 “중국은 지금 추가 관세 때문에 내게 매우 겁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가



미-이라크 쿠키 4월 15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타곤에서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의 회담장에 양국 국기 모양으로 장식한 쿠키가 접시에 놓여 있다. 알-수다니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 직후 워싱턴을 방문했다. 【알링턴=EPA/연합뉴스】

세하면서 ‘관세 폭탄’을 앞세운 미국 대선 후보의 중국 때리기 경쟁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사업)



해외마케팅의 No.1 성공파트너



go Beyond Korea!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성공파트너 **이씨플라자**가 함께합니다

홍보/광고	글로벌 B2B를 활용한 수출마케팅 검색엔진 / SNS 마케팅 해외상품홍보지 (무역전문지)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 마케팅 대행 바이어발굴/매칭, 현지 수출상담회
조사/일반컨설팅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위한 ESG컨설팅 해외시장조사 (일반 · 심층)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해외 실거래 바이어 · 경쟁사 조사
디자인개발	홈페이지/쇼핑몰제작/종이카탈로그 제작
홍보동영상	홍보영상제작

- ▶ 중기부,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8년 연속 지정 수행기관
-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시각·멀티) 등록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및 방문컨설팅	02-3433-4222 / 4235 export10@ecplaza.net
---------------------------	--

검색창에 **이씨플라자** 를 검색해보세요!

▶ 중기부, 산업부 수출바우처 우수 수행기관 선정

내수기업(튼튼한내수기업포함) / 초보기업 / 유망기업 / 성장기업 / 강소기업 / 강소+기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분야, 그린분야, 소비재분야, 서비스분야) / 중견글로벌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